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 애 순

2014년 8월

#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윤

현 애 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현애순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 A Study on the early novels of Kyungri Park

Hyun Ae-so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사 검토	1
2. 연구 목적과 방법	6
II. 남성지배 사회의 폭력성 고발	12
1. 여성의 정체성 훼손과 성적 억압	12
2. 남성권력 체제의 반생명성과 잔혹성	22
3. 남성성의 부재와 위기의식	31
III.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대응 전략	41
1. 전통적 여성상의 거부와 저항	41
2. 여성의 가치회복과 생명의식의 발현	49
3. 양성평등과 공존의 모색	58
IV. 의의와 한계	64
V. 결론	68
※ 참고문헌	71
※ ABSTRACT	75

# I. 서론

## 1. 문제제기와 연구사 검토

박경리<sup>1)</sup>는 1955년 『현대 문학』에 단편 「계산」이 추천되면서 등단한 이래, 『토지』 이외에도 40여 편의 중·단편소설과 10여 편이 넘는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왕성한 필력을 과시했던 작가이다. 그는 전쟁과 분단이 남긴 정신적, 물질적 상흔에 천착한 단편소설을 필두로 대하소설 『토지』에 이르기까지 작품 영역의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며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박경리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첫째, 1950년대는 전쟁미망인의 비극적 삶과 고통을 다룬 단편에서 출발하여 자전적 소설의 경향을 보였다는 점, 둘째, 1960년대의 장편소설에 와서는 작가적 시각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그리고 민족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박경리 문학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에 와서 그 모든 종합이 이루어졌다는 점<sup>2)</sup> 등으로 집약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박경리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토지』를 중심으로 논의된 연구,<sup>3)</sup> 『토지』 이외의 장·단편 소설에 대한 연구,<sup>4)</sup> 그리고 핵심 주제에 따른 주제별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핵심 주제에 따른 주제별 연구는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경리 소설을 한(恨)과 운명론적 세계관의 표출로 인식하는 입장이다.<sup>5)</sup>

- 1)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출생, 2008년 5월 5일 타계.
- 2) 김치수,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8~31쪽.
- 3) 양문규, 「『토지』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임진영, 「『토지』의 삶과 역사의식」,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惡)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윤남희, 「박경리 『토지』 연구-여성성 및 '일체' 사상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 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9집, 국제한인문학회, 2012.
- 4) 김혜정,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여주인공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11집, 개신어문학회, 1994.  
송희경,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자전적 요소의 수용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수영,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조미희,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5)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김만수는 박경리가 사용하는 운명론은 적극적 성격의 운명론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자신의 강한 개성으로 인해 몰락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작품을 사건이나 시대 상황을 그린 사건소설이 아니라, 성격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 성격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이덕화는 박경리의 비극적 세계인식과 객관적 현실의 폭력적 힘에 의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여성이며, 여성은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서 열등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여성들의 현실적 제도나 관습에의 도전은 또 다른 거대한 힘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그렇기에 여성은 현실적인 사랑보다는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sup>7)</sup> 류보선은 『토지』를 ‘한’이라는 정서에 몰두한 작품이라 평하면서, 한국 여인들의 ‘한’을 훼손된 것까지 감싸 안는 순백의 삶, 즉 위대한 모성의 세계로 해석하였다.<sup>8)</sup>

두 번째로는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생명사상과 연계된 연구이다.<sup>9)</sup> 김영민은 박경리 문학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생명과 영성의 철학이라고 언급하면서, 박경리의 글쓰기에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평한 세상을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보았다.<sup>10)</sup> 김현숙은 박경리에게 있어 생명사상이란 스스로 살아온 삶 속에 배태되어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명이라 함은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동적인 것들의 생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생명을 다루되 그 생명은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와 언어의 질서가 만나 작품을 만들고 인물은 작품 안에 하나의 가상의 세상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작품 활동 초기보다 후기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sup>11)</sup>

마지막으로 여성 인물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연구가 있다. 이는 앞으로 이 논문

안남연, 「박경리, 그 비극의 미학」, 『여성문학연구』 제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6)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김약국의 딸들』을 읽고」,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7) 이덕화, 「비극적 세계와 여성의 운명-『토지』 이전의 박경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8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8)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9)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사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제3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10) 김영민, 「박경리의 문학관 연구-고통과 창조, 그리고 생명의 글쓰기」,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서울출판사, 1996.

11) 김현숙, 「박경리 문학의 생명사상」, 『한중인문학연구』 제24집, 한중인문과학연구회, 2008.

이 전개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과 상통하는 주제인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상에 대한 논의와 여성 인물들의 정체성 탐색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대별된다.

먼저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상에 대한 논의로, 강국희는 『토지』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현실개척형 인물, 현실안주형 인물, 현실도피형 인물로 나누었다. 그는 현실개척형 인물로 최서희, 귀녀, 별당아씨, 유인실 등의 인물을 들었으며, 현실안주형 인물로 윤씨부인과 월선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현실도피형 인물로는 이양현, 임명희, 기화(봉순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12)</sup> 김은경은 여성 지식인 인물들이 법에 대응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법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 법에 무조건으로 순응하는 인물, 법으로부터 일탈을 자행하는 인물, 법에 대해 저항과 복종의 양가적 태도를 취하는 인물로 유형을 나누고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 주체의 양상에 주목했다.<sup>13)</sup>

오혜진은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에 주목하여,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 충돌하던 우리 근대사를 박경리 소설이 여성이라는 주체를 내세워 극복 또는 좌절하는 모습에 천착했다고 평가했다.<sup>14)</sup> 그에 따르면 세 작품의 주인공 용빈, 지영, 서희는 수많은 상처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모성과 여성성이 지닌 특수성을 감싸 안은 ‘윤리적 주체’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욕망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박경리 소설이 타자화된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근대와 역사의 주체로 세우려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김양선은 박경리의 『표류도』를 전후과 여성 지식인의 표상을 구축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전쟁미망인인 주인공 현희를 욕망의 주체이자 이성적 주체라고 명명했다. 그는 작가가 전쟁미망인인 현희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존형, 경제형 인물로 그리는가 하면, 집 밖, 결혼 제도 밖의 낭만적 사랑을

12) 강국희, 「박경리 『토지』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3) 김은경,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4)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실현하려는 욕망의 주체로 그리고 있다고 보았다.<sup>15)</sup> 또한 『표류도』는 전후 여성에게 덧씌워진 가정성의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내파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다음 여성 인물의 정체성 탐색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백지연은 가족관계와 여성의 자기 정체성 탐색 방식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박경리의 초기 소설을 고찰하였다.<sup>16)</sup> 그는 박경리 소설에서 여성의 삶은 그 자체로 고립하여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제도체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드러나며, 나아가서는 가족이 놓이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경리 초기 소설은 가족과 사회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여성 억압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은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세계인식의 발전적 경향과 여성성장소설적 요소를 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7)</sup> 그에 의하면 『시장과 전장』은 작가의 분신인 주인공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면서 여성들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민족과 관계를 맺고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여성 정체성을 찾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재면이나 기법상에서 새로운 서사적 세계로 확대시키는 ‘여성적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해옥은 1950년대 초기 소설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작가 자신이 여성 억압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전체 작품 세계 중 여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 많다고 언급했다.<sup>18)</sup> 그는 이 시기의 박경리 작품들은 여성 인물이 주체 부재의 위기 상황을 자각하는 과정과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내면세계로부터 벗어나 현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작가의 체험 세계로 서사의 관점이 한정되는 한계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윤경은 박경리가 가난한 여성 가장을 통해 전후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쇠

15)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6)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가족관계의 양상에 따른 여성인물의 정체성 탐색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17) 김혜정,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여성성」, 『개신어문연구』 제15집, 개신어문학회, 1998.

18) 김해옥, 「‘여성적 자존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1950년대 박경리 소설」,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 소설』, 박이정, 2005.

락한 인간군상을 비판한다고 보았다.<sup>19)</sup> 그는 남성 사회가 여성 가장을 성적 대상으로 왜곡시키며 동시에 배금주의와 안일함에 물든 여성들 역시 이들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박경리가 『토지』의 서회를 통해서 환경에 좌우되는 수동적 주체에서 경제적, 능동적인 주체로 이행되는 여성 가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성 주체가 소유를 바탕으로 가장이 될 때 남근적 주체로서 본질적 성정체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여성 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박경리 소설을 분석한 논의<sup>20)</sup>도 주목된다. 최재은은 『토지』에서 부정적인 여성 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성(性)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본능적인 욕구에 가깝다면, 긍정적인 여성 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욕망은 인간적인 실현 가능성을 위한 욕망으로 불합리한 사회체제에 대한 변혁의지이거나 자신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의 욕망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여성 인물들은 이러한 사회적 욕망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숙시켜 마침내 자아실현에 이르는 여성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박경리 문학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다. 논자들은 각 작품이 지닌 주제나 형상화의 특징에 따라 다원론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박경리 문학을 고찰한 논의인 경우는 주로 격변하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여성상에 주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의 범주를 과감하게 뛰어넘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체성 확립 과정을 탐색하거나 자아 발견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그들은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이 개인과 사회, 사회와 여성이라는 명제 앞에서 갈등하다가 단절과 소외, 좌절과 절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박경리 세계관과 그 문학적 성취를 밝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 이윤경, 「박경리, 박완서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20) 최재은, 「박경리의 『토지』연구-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처럼 기존의 연구사를 일별해 본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상당수의 논의들이 『토지』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부장제라는 거대 권력 체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고 해도 피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여성의 문제를 비극적 ‘운명’이나 ‘한’의 테두리 안에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관점은 박경리 문학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여성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외에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자각과 성장에 연구가 편중된 결과, 가부장제의 또 다른 피해자인 남성이 배제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오로지 여성만의 문제라는 인식을 주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토지』 이전 박경리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억압의 양상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려는 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혹은 남성 문제의 본질을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 체계의 소산으로 간주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성권력 체제가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성과 및 한계에 주목하는 일이다.

## 2. 연구 목적과 방법

여성해방문학의 기조는 여성들이 겪어 온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억압 경험들로부터 제기된 일련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해방문학으로 나아감을 지향한다.<sup>21)</sup> 따라서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받고 타자화된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여성주의 관점의 문학 연구 역시 인간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여기서 가부장제란 남성권력 체제의 산물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뜻한다. 그 지배 양상은 단순한 동물 세계의 지배 현상과 달라서 사회 제도와 문화적 차원의 기제를 매개로<sup>22)</sup>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체계와 가족 형태의 근간

21) 김현숙, 「페미니즘이 한국 여성문학에 끼친 영향」, 『여성학논집』 제1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0, 10쪽.

을 이루어왔다.

그동안 세계 역사는 남성중심 지배체제에 의해 여성들을 주변부로 위치 짓고 소외시키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여성의 억압과 소외 문제는 여성들을 이 분법적으로 타자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진정한 인간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훼손된 자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왜곡되고 굴절된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여성주의 문학의 선결과제로서, 그것은 억압되었던 여성성<sup>23)</sup>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제 여성 문학 연구는 기존의 남성 작가 중심의 연구 풍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작가를 중심에 놓은 여성 중심의 비평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창조성, 여성 의식, 여성 작가의 스타일을 남성 작가보다 열등한 요소로서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특징에 의한 하나의 차이로 인정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여성 작가의 작품에는 여성의 사회적·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남성 작가와는 다른 미학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24)</sup>

1950~60년대 박경리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은 ‘전쟁미망인’으로 호명되는 여성들이다. 「암흑시대」, 「불신시대」 등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은 전쟁미망인인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작품 안에 그대로 표출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때문에 작가는 당시 사소설 작가라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는 작가의 사사로운 삶의 형태가 객관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작품 안에 형상화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박경리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sup>25)</sup> 작품 안에 작가의

22)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58쪽.

23) 지금까지 남성성을 중시했던 부계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남성성(masculinity)은 서양적인, 양(陽), 과학기술주의, 생산, 효율성, 개인중심주의, 능률, 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성(femininity)은 동양적인 것, 음(陰), 생태주의, 재생산, 참여, 공동체, 안정, 균형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자연적인 성(sex)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인 학습과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젠더(gender)로서의 성개념이다.(김해옥, 앞의 책, 14쪽.)

24) 위의 책, 159쪽.

25) 그는 소재가 신변에서 왔다고 하여 아주 협소한 뜻의 사소설이라 한다면 저항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던 작가는 없으며, 모방이 아닌 바에야 작가는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으로든 끊임없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왔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실전을 경험하고 전쟁 이야기만 쓰는 남성 작가에게는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서, 여자가 겪는 전쟁은 심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다른데도 전쟁미망인만 나올 것 같으면 작품이 여하하게 윤색되었건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편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박경리, 『Q씨에게』, 술출판사, 1993, 188~189쪽.)

실제 삶이 투영되었다고 해서 사소설 작가라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쟁 중에 남편과 자식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여성 가정의 비극적 삶이 비단 작가 개인만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한 혈육의 죽음과 가족의 해체는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보편적 수난사로 시대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sup>26)</sup> 따라서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 드러난 여주인공들의 불행은 개인의 비극적 운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러한 ‘자전적 소설’ 형식은 일종의 연작 형태를 형성하면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채 침묵을 강요당하던 여주인공들의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와 여주인공의 동질성’은 여성이 사회와의 관계적 삶을 통해 주체적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결정적 근거<sup>27)</sup>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박경리 초기 단편을 사소설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했던 것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의한 가부장적 사고의 편협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박경리가 개인적 체험을 작품 안에 그대로 투영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설에 반영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느냐에 있다고 본다.

박경리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근대 한국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한 봉건적 사회체제와 ‘부계 혈통’만을 강조하는 보수적 혈연체제가 잔존하던 시대였다. 박경리 소설은 대개가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문제는 박경리 소설 안에서 주된 모티프로 작동하고 있다. 박경리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자의식의 기저에는 여성으로서의 타자성을 내면화할 것을 강요해온 봉건적 관습에 대한 거부 및 저항의 심리가 복잡하고도 은밀하게 잠재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제기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부장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밀접한

26)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남성들은 일상화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성들은 남성 부계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전쟁미망인을 포함한 50만 명 이상의 미망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자식과 부모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생계목적의 노동에 종사했고, 상이군인과 그 가족들, 전쟁고아들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4쪽.)

27) 김혜정,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여주인공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203~204쪽.

관련을 맺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에서는 전후의 폭력적이고 속물화된 세계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비극적 상황이 연출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지배 구조 속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였다.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도 전쟁의 폭력성과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이라는 이중적 고통 속에서 공통적으로 소외를 경험한다. 그동안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던 여성들은 남편 혹은 자식의 죽음으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극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 궁핍함에서 벗어나고자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남성적 위계질서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것이다. 특히 전후의 불안하고 황폐한 현실은 인간을 속물적이고 타락한 배금주의적 욕망<sup>28)</sup>으로 치닫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처럼 박경리는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온존하는 전후의 속물화된 세계에서 억압과 소외로 얼룩진 여성의 삶에 주목한다. 작가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대하소설 『토지』에 이르기까지 여주인공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여성들의 삶을 서사의 중심부로 이동시킨다. 그의 작품 세계는 사회 여러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과 주제를 드러낸 바 있지만, 그 중 일관되게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가치회복이다. 이는 여성 주체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여성 억압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관점이 견지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작가는 여성 문제를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로 인한 여성의 억압과 소외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여성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다루는 것에는 거부감을 드러낸다.<sup>29)</sup> 그는 여성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와 유리되어 단독으로 선을 그어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인간의 갈등을 이분법적인 성의 대립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성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한정시켜 다루기보다는 양성 모두의 극복 과제로 간

28) 『표류도』의 계영과 최강사, 『김약국의 딸들』의 용숙과 정국주, 『파시』의 서영래와 문성재 등은 전후 물질적 욕망에 휩싸인 속물적인 인간 군상을 이룬다.

29) 박경리는 사회제도라든지 풍습, 어떤 불문율에 의한 여성의 억압된 위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여건일 것이며 인간 문제에서 유리되어 여성 단독이라는 확연한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힌 적 있다.(박경리, 『Q씨에게』, 44쪽.)

주해 성차별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남성 역시 사회적 구조물로서 역사적 가변성 속에 위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부장제를 주조해낸 가해자이자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여성의 문제를 남녀 간의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양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방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을 살펴보고,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및 남성의 성격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박경리 문학 작품에 드러난 폭력적인 가부장제의 표출 양상에 주목하여,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훼손되어 왔으며 여성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고 타자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전통적 여성상의 거부를 통해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여성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남성지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가 제시한 대응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볼 것이다.

이와 함께 가부장제 사회의 폐쇄성은 여성은 물론 남성의 삶도 제약한다는 사실을 환기해, 자유로운 주체로 구현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남성들 즉 당대의 부재하거나 나약하게 형상화된 남성의 모습과 그것이 갖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가부장제 사회로 인해 파생된 삶의 문제는 무엇이며, 여성과 남성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작가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면모가 드러날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박경리 문학 전체를 조망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 대상은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표류도』(1959), 『성녀와 마녀』(1960-1961), 『노을 진 들녘』(1961-1962), 『김약국의 딸들』(1962), 『시장과 전장』(1964), 『과시』(1964-1965) 등 여섯 작품이다.<sup>30)</sup> 이들

30) 이 가운데 『성녀와 마녀』는 2003년 인디북 판을, 나머지는 모두 2013년 마로니에북스 판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 작품들을 인용할 때는 ( )안에 작품 제목과 이들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하기로 한다.

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대한 재고와 비판의 사유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들이다. 여성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한 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꿈꾸던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과 기존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꿈꾸는 남성 인물들을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남성지배 사회의 폭력성 고발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배경이 되는 1950~60년대는 남성중심 사고방식과 봉건적 생활양식이 강하게 고수되던 시대였다. 박경리는 남다른 통찰력과 예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상황을 소설에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이 때문에 박경리 소설에는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전후의 불안하고 속물화된 사회 분위기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폐쇄성과 맞물려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가는 이들의 시련과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남성지배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 기여한다.

### 1. 여성의 정체성 훼손과 성적 억압

오랫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든 가부장제로 인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살아왔다. 여성들은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성장해야 했으며,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지배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여성들은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이 억압되고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은 오로지 남성과의 관계 속에만 의의를 지니는 타자로 육화된 존재였다.

시몬느 드 보브와르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주체와 타자로 규정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여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역할, 즉 남성의 주체적 위치에 대해서 타자가 되는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다는 것이다.<sup>31)</sup>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는 속성들은 사회 공

동체의 해석과 관점을 초월하는 것일 수 없다. 인간의 속성, 특히 성적 속성은 그것이 놓인 맥락과 관계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 부여된다. 따라서 여성적 속성은 그 자체로 자연 본래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속성인 것이다.<sup>32)</sup> 가부장제 사회가 야기한 이러한 여성적 속성에 의해 여성은 주체가 아닌 타자로 전락하게 되고 여성의 정체성은 심각한 훼손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의해 훼손된 여성의 정체성은 박경리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서사화된다. 1950년대 박경리 소설에는 공통적으로 전후의 부조리한 사회 상황이 여주인공을 통해 고발된다. 소설에는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전쟁미망인이 어머니와 딸(혹은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기 상황이 그려진다. 주인공은 대개가 지식인 여성으로서 이들은 부조리하고 속악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다 결국 소외를 경험한다.<sup>33)</sup> 이러한 여성들의 소외는 논자들에게 따라 여주인공의 병적인 결벽증과 폐쇄적 성격 탓<sup>34)</sup>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박경리의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이탈하고 소외되는 것을 개인의 성격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당시 전쟁미망인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관습적 통념에 의해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이는 전쟁미망인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가리켜 전쟁미망인이라 불렀다. 이 미망인이라는 호칭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아내’라는 뜻으로, 죽은 남편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아내를 규정하는 용어이다. 이는 ‘남편을 뒤따라 죽어야 하는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아내’라는 윤리적 의무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남성에 의해서 보호되고 규정되는 여성’이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전쟁미망인이라는 호칭 역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채 사용되었다.<sup>35)</sup> 이

31) 최영, 「페미니스트 문학비평-그 이론화의 쟁점과 흐름」, 이명섭 외, 『현대 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319쪽.

32) 김선희, 「자아, 여성, 페미니즘」, 『한국여성철학』 제3집, 한국여성철학회, 2003, 12쪽.

33)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불신 시대」나 「암흑 시대」 등에는 남편과 아이의 죽음, 어머니와의 갈등, 속물적 세계에 대한 여주인공의 혐오가 두드러지는데, 이때 여성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편으로 스스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34) 이미숙, 「박경리 소설의 변모 양상-1950년대,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3쪽.

35) 이임하, 앞의 책, 27쪽.

처럼 전후 사회는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의 홀로서기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회였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이 선택한 소외는 폭력적인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sup>36)</sup>

스스로의 존엄을 위한 여성의 소외 양상은 『표류도』의 현희, 『시장과 전장』의 지영에게서도 발견된다. 『표류도』는 전쟁미망인이자 다방 마담인 강현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다방 ‘마돈나’를 운영하는 주인공 현희는 홀어머니와 딸 훈아를 부양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한다. 그녀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집안을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현희는 늘 인생에 대한 피곤과 허무의식 속에서 삶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현희가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다가 결국 다방을 운영하면서 힘든 삶을 영위하게 된 경위와, 그녀가 지속적으로 삶의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폭력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낳은 전쟁의 상처와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위계적 사회 구조 때문이다.

현희의 남편 찬수는 한국전쟁 발발 후 철저한 코뮤니스트 친구에 의해 길에서 사살된다. 찬수의 죽음은 홀로 남은 현희의 삶에 족쇄로 작용한다. 혼전 임신과 사생아의 출산으로 그녀는 방탕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그녀는 명문대를 나오고도 취업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사생아를 낳고 다방을 운영한다는 멸시의 눈초리는 항상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폐쇄성은 현희를 불안의식과 허무의식에 사로잡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주요 동인이 된다. 여성의 삶을 남성의 시각으로 통제하고 재단하기 위해 만든 사회 통념과 규칙들은 이제 그녀의 삶을 부정적으로 간섭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준거를 제공한 것이다.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지킬 때만 인정받을 수 있는 종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현희를 더욱 억압하고 소외시킨다.

전쟁의 황폐함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함과 남성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여성을

36) 박경리는 자신의 존엄이 상처를 받았을 때, 심정적으로는 생명을 거는 지경까지 가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은 강자에 있지 못하며, 설사 강자의 위치에 섰다고 하더라도 응징이나 보복이 불가능한 것 또한 생리인 것 같다고 말한다. 결국 자신은 소외되는 길밖에 없으며 대개의 경우 그것은 절연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한다. 그는 가로질러온 자신의 발자취에서 어떤 궁핍보다 잊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이 침해당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존엄과 소외가 박경리 문학의 기저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 찾을 수 있다.(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 통신』, 나남, 1994, 137~138쪽.)

향한 가부장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현회로 대변되는 당시 여성들에게 매우 힘든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회처럼 강한 자존감과 결백한 기질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으로 스스로 소외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현회가 보인 소외는 스스로 직접 선택한 소외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타율적 선택으로 보는 것이 옳다.<sup>37)</sup> 왜냐하면 힘없는 여성이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소외는 남성중심 체제가 중용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며 외적 세계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해석된다.

『시장과 전장』의 여주인공 지영도 세계의 폭력 앞에서 갈등하다 고립된 삶을 자처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과 전장』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자전적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쟁을 겪는 동안 여주인공의 정체성이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영은 가족을 떠나 홀로 연안으로 가서 교사 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소설 첫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을 찾아 가족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남편 기석에게 보내는 그녀의 편지에는 왜 그녀가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난다. 다음은 남편에게 보내는 지영의 편지 내용 중 일부이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이사 갔었어요. 거기서 당신은 저를 양재학교에 넣어 주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다니고 전 그만 두었고 우린 인천으로 다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저를 국민학교에 나가라 했어요. 전 국민학교에 나가서 육 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다시 저를 A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속에 나가기 싫어하는 저의 어쩔 수 없는 성격에는 당신의 고마운 마음이 도리어 비극이 아니었을까요? (……)

우리의 생활은 어머니의 철저한 경제관념으로 단단해졌고 어느 모로나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제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37) 소외론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한다. 또는 개인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뒤에 사회압력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압력에 의한 선택, 강요된 선택이 자리하고 있는 구조의 압력, 사회압력에서 시작한다. 구조의 압력, 사회압력에 의한 선택을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과 분리한다. 즉 구조의 압력, 사회압력이 개인에게 투입되면 행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압력, 사회압력 그 자체가 된다.(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한울, 2004, 50쪽.)

오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당신하고 저하고 극장에 한 번밖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꽃병 하나 저의 손으로 사 들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지극히 건실한 생활태도라 보았고 또한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

제가 조르는 식으로 받아서 당신이 당신 친구에게 부탁하여 연안이라는 이곳에 취직자리가 나타나고 또 운동을 해서 서울로 오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실히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이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시장과 전장』, 152~156쪽)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지영은 남편과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가정에서의 지위는 물론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그녀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아내가 고학력자이면서 좋은 직업까지 갖춘 신여성이기를 바라는 남편과 딸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연안으로 떠난다. 물론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못한 지영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과 어머니가 지영의 삶에 개입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영의 의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지영이 괴로워해도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의 기저에는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부장적 권위주의<sup>38)</sup>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고 또 여성다움의 틀로 마련된 것은 수동적이고 정숙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한, 요컨대 인종의 부덕을 보장하는 성질이였다. 그것은 가부장체제 속에서 남성우위를 보장해 주는 복종의 미화였다.<sup>39)</sup> 이렇듯 여성의 주체적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정체성마저 훼손하고, 결국 지영은 가족에 대한 애착도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지영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상에 대한 혐

38)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사회압력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은 차이와도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의 객관적 자아에 투입되어 있다. 그 사회압력은 여성에게 투입되어 있을 때는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남성에게 투입되어 있을 때에는 남성이 결정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라고 각각 명령한다.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사회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간 사이의 지배를 포함하고 있다.(위의 책, 168쪽.)

39)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박경리의 소설」,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410쪽.

오는 전쟁에 의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지영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공포와 혐오를 느꼈다고 회고한다. 그러한 공포와 혐오는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염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는 여성의 삶을 남성 혹은 남성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영의 연안 생활은 주체로서 정체성을 잃은 여성이 가부장적 사고가 팽배한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도피의 수단임이 드러난다. 보수적인 사회체제는 지영은 물론 당시 모든 여성들에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강요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마저도 남편의 동의를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이 확보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영은 주체성을 상실한 자신의 처지를 종이 인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가부장제에 대한 환멸의 표현인 것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중심 가치관을 내재화한 여성 즉 어머니에 의해 고착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박경리 소설의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여성의 미덕으로 수용하면서 딸의 욕구를 억누르는 전통적인 여성들로 구현된다.<sup>40)</sup> 이러한 모녀관계는 『표류도』에 등장하는 현희와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참으로 추악한 싸움이였다. 가장 정다워야 할 모녀가 마치 원수들처럼 마주 보고 있었던 것이다. (……) 언제인가 전에 어머니는, 애비도 없는 혼아를 낳았다 하여 나에게 심한 모욕을 가한 일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입고 있었던 외출복 치마를 앉아서 발기발기 찢었던 것이다. (……) 틈바구니를 살살이 뒤지는 듯한 눈초리,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 애통하고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는 쉴 새 없이 나를 덮쳐준다.(『표류도』, 163~164쪽)

박경리 소설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남편에게 버림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여

40) 화이어스톤은 남성에게 결혼이란 단순히 이기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장치이며, 그의 육체적 필요를 쉽게 만족시켜주고 그의 상속자를 낳아줄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그녀의 의무와 보상에 관해서 분명하게 아는데 이는 남편에 의해 소유되고, 평생 동안 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사노동으로 완전히 봉사하고, 그 보상으로 지배계급의 일원에 의한 장기적인 후원과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역설한다.(슬라미스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역, 풀빛, 1996, 219쪽.)

성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향한 지나친 애정과 의존심은 오히려 딸들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준다.<sup>41)</sup> 초도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 인격이 지니는 유동적이고 과정적인 성질은 특히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부터 야기된다. 딸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동일시를 통해 감정이입과 공생적 융합을 위한 능력을 획득한다. 따라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어쩔 수 없이 모녀의 유대관계의 특수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모성을 다룬 근래의 작품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와 어머니로터의 분리가 딸의 성숙한 여성 정체성 획득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때때로 어머니의 바람직한 면에 대한 ‘개인적 동일시’와 희생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신분적 동일시’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갈등은 역할들에 의해서 강화된다. 즉 개인적으로 경험된 어머니는 이상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구분되고 어머니라고 하는 평가절하된 직업과도 구분되는 것이다.<sup>42)</sup>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와 분리로 인한 내적 갈등은 현세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 속에 표류하게 만든다. 현회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어머니에게서 끊임 없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자신만 바라보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의 양가적 감정은 그녀를 더욱 옥죄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회가 점점 더 단절되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된 것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독립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무의식적 행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의 어머니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인 셈이다.

박경리 소설에는 여성의 몸이 남성에게 지배당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여성성의 훼손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상품화하는 남성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가) “여자란 돈과 폭력이면 정복되는 동물이 아니오?” (……)

“일전에 내가 부탁한 일 들어주어야 돼요. 스미스, 사실 저 여자는 말이야, 내 것인데 조건에 따라 양보할 수도 있어. 여자를 갖는 데는 낭비가 심해 골치야, 하

41) 이러한 어머니상은 박경리 자신의 어머니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14살 나이에 네 살 연상인 어머니와 혼인했던 아버지는 열여덟에 박경리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조강지처인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딸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셈이다.(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 통신』, 133쪽.)

42) 주디스 키건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9, 230~231쪽.

하핫!”

눈에 불을 켜고 최 강사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노려본다. 망치로 그 뒤통수를 바수어 죽이고 싶다. 어떠한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고 싶다. (……)

“이런 곳에 있는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니까 손쉽게 또 뒤가 귀찮지 않거든…….”

빈 청동 꽃병을 와락 잡아당겼다. 오직 최 강사의 뒤통수만이 흑점이 되어 뚜렷하게 나타난다.(『표류도』, 229~230쪽)

(나) “야합을 해서 사생아까지 낳고 많은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 다방 마담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남자의 그만한 희롱쯤 받아넘겨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무슨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녀도 아니요 가정부인도 아닌 처지에서…….”

환경과 조건만으로 특정된 범주 속에다 나라는 인간을 집어넣는 검사의 고정된 관념 앞에서 새삼 무슨 항변을 하겠는가. 하긴 검사도 한 사회의 산물이니 사회의 통례를 좇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인가.(『표류도』, 255쪽)

(가)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최강사가 구두로 현회를 외국인에게 매매하는 장면이며, (나)는 현회의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검사의 말이다. 여기서 최고 지성을 갖추었다는 대학 강사나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사의 시각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이 포착된다. 최강사는 “여자란 돈과 폭력이면 정복되는 동물,” “이런 곳에 있는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니까” 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 가능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검사 역시 “야합을 해서 사생아를 낳고,” “다방 마담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처녀도 아니요 가정부인도 아닌 처지에서”라는 발언을 통해 가정의 테두리 밖에 놓인 여성의 몸은 감시의 대상일 뿐 아무런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미혼모’와 ‘다방 마담’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지배담론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몸이 남성에 의해 억압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몸을 남성들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여성의 몸이 비윤리적인 남성에 의해 억압되는 양상은 『노을 진 들녘』의 주실과 『파시』의 수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노을 진 들녘』의 여주인공 주실은

외부와의 교류도 차단된 곳에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야성적으로 키워진 탓에 남성들의 성적 유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일제 강점기 때 큰 아들이 학병으로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딸과 며느리마저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자, 송노인은 모든 것을 교육과 문명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송노인은 손녀 주실에게서 문명의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모두 빼앗아 버린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무지는 주실을 위협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과 야생의 자유분방함을 갖춘 주실의 아름다움은 집안 하인의 아들 성삼과 하나뿐인 사촌에게 차례로 겁탈당하는 원인이 되고, 이는 그녀의 삶을 지독한 수렁으로 이끈다. 그동안 주실은 사촌 오빠인 영재를 의지해 왔지만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한 영재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이를 눈치 챈 성삼은 송노인의 재산이 탐이나 주실의 임신을 핑계로 송노인을 협박한 끝에 주실과 결혼한다. 물론 주실의 비극이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할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송노인의 시대착오적 선택은 여성의 주체적 삶을 용인하지 못하는 봉건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후 주실은 성삼에게 끔찍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게 된다.

“망할 기집애! 죽여버린다, 죽여버려! 너 까짓 것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린단말이야. 흐흐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의 독특한 웃음이 나직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획, 휘익! 바람을 꿰는 듯한 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그때마다 쥐어짜는 듯한 주실의 신음이 높아진다.

“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렸지! 개짐승처럼 말이야. 나도 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너를 때려준다! 때려준다! 이 의문스런 병어리, 병어리야! 언제까지나 병어리 놀음이야!” (……)

거의 반나체가 된 주실은 입에 수건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가죽 끈으로 후려치고 있는 성삼의 무서운 눈. 사람이 아니다. 야수다. 완전 미친개의 눈이다.(『노을진 들녘』, 338~339쪽)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결국 주실의 비극적 삶은 가부장적 질서와 권위를 중요

하게 여기는 송노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젊은 시절 송화리에 정착하여 많은 재산과 땅을 소유한 송노인은 상전과 하인의 엄격한 신분제를 고수하며 봉건적 질서를 신봉하는 지주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로 인해 하인의 아들 성삼은 상전인 송노인과 영재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고 성장했으며, 그 분풀이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주실이다. 거기에 송노인의 재산까지 노리는 성삼의 그릇된 욕망은 주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주실의 자아와 정체성은 파괴된다. 결국 그녀를 무지하게 키운 송노인의 외고집과 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한 영재, 탐욕과 질투가 빛은 성삼의 왜곡된 행동 등 이 모든 남성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힘없는 한 여성의 삶이 파탄에 이른 것이다. 송노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손녀가 학대당한다는 자의식에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 송노인의 죽음은 주실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송노인의 죽음 이면에는 봉건적 가부장제의 와해를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에 의해 유린되는 여성의 성은 『파시』의 수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때 부잣집 딸이었던 수옥은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이다. 전쟁은 그녀에게 가족은 물론 순결마저 상실하게 했지만 『노을 진 들녘』의 주실처럼 수옥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된다. 수옥은 우여곡절 끝에 양심적인 인물 조만섭을 만나 통영에서 잠시 그의 보호를 받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조만섭의 아내 서울댁의 추악한 거래에 의해 유부남인 서영래의 씨받이가 된다. 서영래는 밀수와 고리채로 부를 축적하는 존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인물이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등극한 사회에서 수옥의 여성성은 물질을 위해 교환되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욕망과 쾌락에 의해 도구화되는 비극을 맞은 것이다.<sup>43)</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경리 소설에 형상화된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

43) 1960년대에 들면서 여성의 간통은 미국문화의 무비판적 모방의 답습에 의한 사랑의 행위로 비하된 데 반해 남성의 간통은 낭만적 사랑의 수호자로 간주된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남성가부장제로 포섭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남성의 간통행위는 공적영역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전한 행위로 공론화된다. 가정 내에서 남성의 간통이 여성 탓으로 전가되며 여성의 성적욕망은 거세되어 여성의 아름다움만이 찬미되고, 여성 육체는 남성 쾌락의 대상으로 남성적 질서에 편입된다.(임은희, 「1950·60년대 간통의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237쪽.)

적 위계 구조에 의해 심각한 정체성 훼손과 성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전쟁미망인이거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로서, 그 중 일부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편견 등 외적 세계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다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 통념과 규칙들은 남성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재단하는 준거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중심 가치관을 내재화한 어머니에 의해 고착화되는 모순적 상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박경리 소설에는 여성의 몸이 비윤리적인 남성에게 의해 억압되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이러한 여성 정체성의 훼손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남성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박경리는 작품을 통해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과 소외로 얼룩진 여성들의 삶의 양상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후의 속물화된 사회를 고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 2. 남성권력 체제의 반생명성과 잔혹성

박경리는 남성지배 원리에 의해 전개되어온 인간 세계가 결과적으로 반생명적이고 황폐한 불모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에서 봉건적 가부장제의 틀에 갇힌 채 희생되는 여성들과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수난 등으로 표출되는데, 주로 그들은 죽음의 모티프로 수용된다.

『성녀와 마녀』의 형숙은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 통념에 저항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만, 끝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비극적 여성이다. 『성녀와 마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으로 양극화된 두 여성의 대립을 통해 사회 구조 안에서 순응과 저항이라는 상반된 태도를 가진 두 여성을 그리고 있다. 그 중 하란은 성녀로 대변되는 여성으로 가부장제 사회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인물이다.

조용한 하란의 모습. 모두 시끄럽게 지껄이고 있는 속에서 사뿐히 떠 있는 흰

꽃잎같이 청초한 모습이다. 흰 저고리에 수박색 치마가 더욱 그런 인상을 깊게 한다. 투명하리만큼 흰 얼굴에 짙은 그늘을 지워주는 속눈썹, 입술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웃음을 참는 듯 이빨 두 개가 아랫입술을 깨문다. 꿈을 머금은 듯 소리 없이 웃음이 흐른다.(『성녀와 마녀』, 11~12쪽)

하란은 흰 꽃잎같이 청초한 외모, 조용한 성격, 늘 복종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 등 당시 현모양처의 전형이라 상징되는 여성의 특징을 지녔다.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의 후견인이 되어준 안박사는 물론이고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 여성이다.

반면 소설 전체의 서사를 지배하는 형숙은 가부장제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도적인 성격으로 인해 방탕하고 파괴적인 마녀로 표상되어 경계와 단죄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형숙의 어머니가 지독한 탕녀였다는 설정은 형숙의 삶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형숙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에게는 어미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무서운 탕녀, 요부의 피가 말이다.”(『성녀와 마녀』, 33쪽)

『성녀와 마녀』의 안박사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고에 사로잡혀 아들 수영과 형숙의 사랑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인물이다. 그는 형숙에 대한 출생 비밀 폭로와 더불어 “피가 나쁘다,” “요부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저주 섞인 말로 수영과 형숙의 교제를 방해하고, 마침내 수영을 하란과 결혼시킨다. 안박사는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간섭하고 통제하는 당시 사회체제와 상통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간 여성은 마녀라 지칭되고, 관습과 사랑에 얽매어 소극적인 삶을 산 여성은 성녀라 규정되는 것을 보면 이 소설이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담론을 답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남성지배와 여성복종의 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는 여성사에 대한 ‘천사’와 ‘마녀’의 이분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천사의 이미지가 여성의 활동공간을 가정이라는 밀폐된 영역에

제한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에 국한시킴으로써, 부드럽고 순종적인 여성을 길러내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기능해 왔음을 밝힌다. 또한 혐오스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녀 이미지의 여성상은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착색된 결과로 해석된다. 억압체계로서의 남성지배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과감하게 노출하는 여성을 마녀로 배척함으로써 이런 여성의 도전을 막아내고, 나아가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여성을 성적 방종과 결부지음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44)</sup>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배담론과 달리 작가는 형숙을 물질에 대한 욕망과 성적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형상화시킨다. 그러나 봉건의식이 팽배한 기존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회적 편견과 인습은 형숙의 삶을 더욱 압박한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소비와 성의 주체로 등장한 형숙을 단죄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1950년대 부정적 기호로 표상되던 ‘아프레 걸’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기혼여성이든 미혼여성이든 전후의 새로운 성향의 여성을 가리켜 ‘아프레 걸’ 혹은 ‘전후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허무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의 여성을 지칭했던 이 용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여학생,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미망인, 외국 군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 등 모두를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퇴폐적, 서구지향적, 사회참여적인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전쟁미망인, 기혼여성, 미혼여성의 성을 규제하고 여성노동을 폄하하면서 여성들에게 남성중심의 사회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up>45)</sup> 따라서 당시 ‘아프레 걸’ 담론<sup>46)</sup>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단죄함과 동시에 여성들을 다시 가부장적 질서 안으로 통합시키려던 규율담론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대의 지배담론을 거부한 결과 형숙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종결되는 파국을 맞는다.

44) 김기중, 「페미니즘 이론의 문학비평론적 적용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논문집』 제17집 3호, 순천향대학교, 1994, 768~769쪽.

45) 이임하, 앞의 책, 207쪽.

46) 여성의 육체가 오랜 세월동안 남성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성이 스스로 육체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지점은 전복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발견을 어렵게 했던 당대 이념에서 탈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가치는 배제한 채 당대 사회의 논의들은 ‘아프레 걸’의 적극적 성행위를 물질적 쾌락주의나 미국문화를 걸치레로 치장하여 몸을 가볍게 놀리는 것으로 담론화한다.(임은희, 앞의 논문, 230쪽.)

형숙은 안박사에 의해 ‘나쁜 피’로 낙인찍히자 수영과 이별을 선언하고 유학을 떠나지만, 돌아온 후에도 수영을 잊지 못해 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던 중 형숙은 자신과 사귀던 또 다른 남자가 수영에게 쏜 총을 대신 맞고 죽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형숙을 다시 가부장적 틀 안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맡는다. 형숙은 자신을 억누르던 보수적인 사회 통념에 맞서 주체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로 구현되는 듯했으나, 결국 사랑을 위해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가부장제의 틀에서 숨을 거두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표류도』의 광희 역시 남성중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여성으로 분류된다. 광희는 현회가 운영하는 ‘마돈나’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발달한 성격에 젊고 아름다워 “신선한 능금을 연상케 하는 소녀”로 묘사된다. 그러나 마돈나에 자주 오던 청년 시인 민우가 광희를 임신시키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녀는 삶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홀로 남게 된 광희 앞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경험을 통해 잘 아는 현회는 그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것이다.

광희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은 과히 좋지 않았다. 광희는 달아날 듯이 몸을 사렸다. 나는 그의 팔을 꼭 잡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병원에서의 수술은 지극히 간단하였다. 돈을 치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

인간은 그다지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수치를 안다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지금 저 수술실 속에서는 동물적인 광희의 무서움만 가득 차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의사는 사람을 짐짝처럼 마구 다루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표류도』, 171~172쪽)

가부장제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잘 알고 있는 현회는 광희에게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으려 낙태를 권유한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사회적 비난과 멸시가 여성인 광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현회이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회는 병원에서 돈만 있으면 생명을 없애는 일도 간단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사

람을 짐짝처럼 다루는 일이 가능한 사회에 경악한다. 남성의 정조와 달리 여성의 정조<sup>47)</sup>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그 책임 또한 오로지 여성의 몫으로 강요하는 그릇된 사회 통념에 의해 한 생명이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 후 광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맑고 순수했던 영혼은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린 타락하고 방탕한 여성이 되어 현회 곁을 떠나가고, 그녀는 윤락 생활을 전전하다 소매치기로 붙잡혀 감옥에서 목을 맨다. 여성의 몸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폭력성 즉 가부장제의 반생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외에도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는 인물들은 박경리 소설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 중 『표류도』의 광희처럼 봉건 사회의 왜곡된 성 개념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른 여성으로 『김약국의 딸들』의 숙정과 용옥이 있다. 숙정과 용옥은 모두 봉건적 윤리의식에 의해 정절을 지키려다 죽음에 이르는 여성들이다. 포악하기로 소문난 봉룡은 첫 아내를 잃고 숙정을 재취로 얻지만, 평소 숙정을 사모하던 송옥이라는 사내가 나타나자 그를 죽이고 한밤중에 도주한다. 이에 숙정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비상을 먹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가부장체제 하에서 여성의 순결은 목숨과도 같은 절대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성장 과정에서 주입된 정절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내면화된 결과이다. 숙정의 자살로 돌도 안 된 아들 김성수는 홀로 남겨져 평소 숙정을 미워하던 백모의 손에 의해 외로운 아이로 키워진다.

백모의 학대는 김성수를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고, 그는 타인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채 스스로 소외된다. 평소 ‘비상 먹은 자손은 지리지(번식) 앓는다’라는 백모의 말처럼 그 후 성수 일가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김성수의 잇따른 사업 실패, 그로 인한 집안의 몰락, 다섯 딸의 연이은 불행 등 『김약국의 딸들』의 이야기는 점점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논자에 따라 김성수 일가의 몰락을 ‘한’과 예정된 ‘운명’에 의한 비극<sup>48)</sup>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47) 여성의 성 행위 및 출산력 통제 양태는 제도적으로 가족·친족 및 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주로 친족 집단의 위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성이 통제되었으며, 여성의 처녀성과 정절, 그리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관습은 이 시대에 주로 활용되어온 기제이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공/사의 공간적·인지적 구분은 더욱 엄격해져서 성과 출산은 낭만적 사랑과 부부애를 중심으로 한 극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족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간·구타와 같은 성폭력이 사적 영역에서 횡행하게 된다.(조혜정, 앞의 책, 28~29쪽.)

있으나, 여기서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정절 이데올로기로 희생된 한 여성의 비극적 죽음에서 기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작가는 숙정의 죽음과 그로 인한 성수 일가의 연이은 비극을 통해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가부장적 성 개념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김약국 집 넷째 딸 용옥 역시 봉건적 윤리의식을 지키려다 비극적 죽음을 맞는 여성이다. 그녀는 정숙한 아내이면서 희생적인 모성의 소유자로 김약국 집 다섯 딸 중에서 가장 가부장적 유교 이념에 충실한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의 비극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기두와의 결혼에서 시작된다. 전부터 언니 용란만을 원했던 기두는 착실하고 알뜰한 살림꾼 용옥을 무관심 속에 철저히 소외시킨다. 그러나 용옥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 그녀에게 신앙은 신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망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용옥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시아버지를 피해 남편을 찾아 부산으로 갔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익사하는 참변을 당한다.

용옥의 죽음에는 무관심한 남편, 인면수심의 시아버지 외에도 용옥 자신과 아버지 김약국의 가부장적 사고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애초에 용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딸의 혼인을 결정한 김약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눌려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용옥의 순종적인 태도 역시 죽음의 간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용옥의 어머니이자 김약국의 부인인 한실택의 삶에서도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다. 한실택도 용옥처럼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아무런 부부의 정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모성의 확장을 통해 소외의 공간을 채워나간 여성인 것이다. 한실택은 집안의 비극을 막아보려 혼자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머니도 알고 계십니까?”

---

48) 김치수, 앞의 글.  
이덕화, 앞의 논문.

“네 어미야 아나마나…….”

하기는 김약국이 하겠다는 일을 한실택이 만류할 처지가 못 된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빈은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깊은 애정으로 대하는 용빈이었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는 불만을 느낀다. (……)

뜰에 내려서니 한 가닥 바람에 파초 잎이 미동한다. 그 파초 잎을 타고 풍뎡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아버지 같다.”

말보다 느낌은 늦게 왔다. 고고한 파초의 모습은 김 약국의 모습 같았고,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뎡이는 김약국의 마음 같았다. 매끄럽고 은은하고 그리고 어두운 빛깔의 풍뎡이 표피, 한실택은 그 마음 위에 앉았다가 언제나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라 용빈은 생각했다.(『김약국의 딸들』, 96~97쪽)

인용문은 김약국이 셋째 딸 용란의 혼인 문제를 두고 둘째 딸 용빈과 의논하는 장면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 김약국은 딸의 혼인과 같은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조차 부인인 한실택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김약국의 딸들 중 유일하게 교육을 받은 용빈만이 그의 의논 상대가 될 뿐이다. 용빈은 유폐된 자아 속에 갇혀 소통이 단절된 김약국의 모습을 “고고한 파초”에, 김약국의 마음을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뎡이”에 비유한다. 매사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김약국이지만 그가 집안에서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받은 남성만이 여성을 지배하고 집안의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는 남성 중심 사회가 부여한 특권<sup>49)</sup> 때문이다.

그러나 한실택은 이 모든 것을 아들을 낳지 못한 자기 탓으로 돌리며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아들 귀한 집에 시집와서 대를 끊기게 했다는 죄책감은 그에게 붙어 닥친 모든 불행을 자신의 부덕 탓으로 인식하게

49) 남성들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고, 여성들이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사회압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사회압력은 여성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남성들의 행위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재생산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열등성을 정당화한다. 그럼으로써 남성들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사회압력에 편승하여 스스로 우월성을 증명하여야 할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사회압력에 압도되어 스스로 열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홍균, 앞의 책, 169쪽.)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의 정을 포기한 한실택은 오직 딸들만 의지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셋째 딸 용란의 불행한 결혼이 화근이 되어 한실택은 사위 연학이 휘두른 도끼에 맞고 비참하게 죽는다.

용란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가부장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매우 본능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머슴 한돌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관습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되어 배척당한다. 그들은 유교 관습이 엄격하게 정해 놓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질타를 받는다. 그러다가 용란은 아버지에 의해 성불구자이고 아편쟁이인 연학과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된다. 용란의 혼인 역시 용옥처럼 아버지 김약국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봉건적 사고방식을 내재한 김약국에게는 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가부장적 횡포를 행사하고도 김약국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용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다. 연학의 살인, 한실택과 한돌의 죽음, 용란의 실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용란은 신분제라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희생된 가엾은 여성이라 할 수 있고, 한실택은 용옥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전통적 규범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어 수동적으로 살다가 봉건적 구습에 의해 희생된 비극적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반생명성은 『시장과 전장』에 나오는 민중들의 수난사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시장과 전장』은 전쟁을 다루는 소설인 만큼 이념적 요소가 크게 부각되는 특징을 지닌다. 작가는 광폭한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닌 이념적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려 함과 동시에, 이념 투쟁의 장이 된 한반도의 비극과 허망함을 작품 안에 형상화한다. 외래적인 이데올로기의 힘에 사주되어 서로를 부정하고 대립하다가 마침내 전쟁으로 모두를 파멸시키는 사람들, 이 역시 나와 타자를 구분 짓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부장적 사고가 낳은 비극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빨갱이는 모조리 죽여라! 새끼도 에미도 다 죽여라! 씨를 말려야 한다!”

구십일 동안 두더지처럼 햇빛을 무서워한 사람들은 외치며 몰려나왔다.

“반동은 다 죽여라! 최후 발악하는 인민의 원수, 미제국주의 주구는 한 놈도 남  
기지 말고 무자비하게 무찔러라!”

-산과 강물까지 말문을 닫게 했던 그 소리는 다시

“빨갱이는 죽여라! 씨를 말려라!”

메아리는 그렇게 돌아오고 피는 피를 부른다.(『시장과 전장』, 317쪽)

『시장과 전장』은 주로 전쟁 중 민중의 체험을 서사로 엮고 있는 작품으로서, 참혹한 전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에 주목한다. 전쟁은 소박하게 사는 우리 민족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소중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또한 소박하게 살던 민중들을 낯선 땅으로 추방시키며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감으로써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의마저 무너뜨리는 잔혹성을 드러낸다. 민중에게 있어 전쟁은 거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재앙이며, 이때 민중들이 가진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열망뿐이다. 이념 대결을 펼치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다수의 평범한 민중들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격렬한 전투 장면보다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에 집중한다. 이는 전쟁을 개인적 차원의 아픔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아픔이요 비극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각인시킨다. 전쟁의 잔혹성과 반생명성을 고발함으로써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옹호의 시선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남성지배 원리에 의해 전개되어온 인간 세계는 결국 반생명적이고 황폐한 불모지를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정절이라는 봉건적 윤리의식에 간혀 희생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전통적 규범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어 수동적으로 살다가 희생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는 작가의 의도가 탐색된다. 이는 박경리가 여성에게만 강요되어온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가부장적 성 개념에 균열을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을 우열의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려는 가부장적 사고의 거대한 횡포로 규정할 때, 참혹한 전장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서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려는 작가의 심리도 발견된다. 이는 작가가 남성 권력 체제의 반생명성과 잔혹성을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3. 남성성의 부재와 위기의식

박경리의 문학적 도정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혼란과 상실의 시대를 노정한다. 특히 가족의 죽음 혹은 가족의 해체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오고 이는 문학 작품에서 주요 모티프로 작동한다.

한국의 근대사 초기는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진 주체적 정치 집단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가운데 신분제의 문란, 민중의 봉기, 외세의 압력, 여러 차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빈곤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즉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심하게 흔들린 시기로, 공적·제도적 영역이 붕괴 내지 축소되어 갔으며 대신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곧 이은 일제 시대를 거치는 가운데 국가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고 도시화·이주 등을 통해 친족 집단의 기능도 점차 약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게 되는데, 주로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거나 징용에 끌려 일본·만주 등지로 가버리거나, 노동을 팔러, 또는 교육을 받으러 떠나갔다.<sup>50)</sup> 또한 1950년에 발발한 전쟁은 분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오며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더욱 가속화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편부 혹은 편모라는 결핍된 가족관계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전후의 암울하고 황폐한 상황은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고립되고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낳았다.

박경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의 부재나 남성 부재의 가족관계도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류도』의 찬수, 『노을 진

50) 조혜정, 앞의 책, 91쪽.

들녘』의 주실 아버지, 『파시』의 수옥 아버지가 부재한 이유는 폭력적인 전쟁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시장과 전장』의 지영이나 『표류도』의 현희가 아버지 없는 남성 부재의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한 이유도 당시 시대 상황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횡포나 한국전쟁의 참상이 모두 우열의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려는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조차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쳐 놓은 그물 안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표류도』의 찬수는 현희의 회상을 통해 전쟁으로 희생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희와의 결합을 단행하는 인물로, 사회적 통념 밖에 위치한 남성이다.

우리는 쉽게 결합되었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꿈을 마련하는 감정보다 현실적이며 생활적인 애정으로 우리들의 연애는 발전되어 갔다. 그 당시 학생들 간에는 좌우익으로 세력이 나누어져 피투성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가담하지 않고 다만 학비와 먹을 것과 시간을 얻기 위하여 무진한 고생을 하고 있었다. (……) 찬수는 흥분할 줄 모르는 사나이였다. 투철한 이성은 지체 없이 행동을 결정하고 명령한다. 그는 결코 자기를 파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찬수는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았다. 동시에 양쪽에서 이용을 하려고 무척 속을 썩인 사람이기도 했다. (……) 이마 위에 피를 흘리고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는 찬수, 찬수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머리는 내 무릎 위에 푹 떨어졌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손, 길바닥에 부딪쳐서 산산이 바스라진 시계. 일식처럼 태양은 내 시계(視界)에서 꺼져가는 것이다.(『표류도』, 46~51쪽)

위에서 보듯 찬수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생활하던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감정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투철한 이성의 소유자로서 좌·우익으로 분열되어 피 흘리는 역사로부터 벗어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역사는 중립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다가왔다. 한국전쟁 발발 후 찬수는 철저한 코뮤니스트 친구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되고 만다. 자신들의 이념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좌·우익의 대립을 보면서 염증을 느낀 찬수는 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양쪽에

게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된 것이다. 좌·우익의 대립과 그로 인한 전쟁, 찬수의 억울한 죽음 등 이것은 ‘다름’을 열등한 것 혹은 틀린 것으로 보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세계의 횡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따라서 찬수의 죽음은 남성권력 체제의 폭력성을 시사하는 안타까운 죽음인 것이다.

『노을 진 들녘』에 등장하는 주실의 아버지와 『파시』에 나오는 수옥의 아버지 역시 전쟁에서 희생된 남성들로서 소설에서는 부재한 존재들이다. 이들의 부재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주인공들의 삶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일제 강점기에 학병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자 주실은 할아버지인 송노인에 의해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차단당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교육의 결핍은 주실로 하여금 영재와 성삼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백치의 상태를 유도한다. 『파시』의 수옥도 전쟁 중 아버지와 오빠들을 잃고 혼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진 후, 파렴치한 남성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소설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부재가 단순히 남성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남성이 가장의 부재는 여성을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쟁 시 가부장적 사고가 낳은 횡포는 아버지대의 비극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특히 딸들에게로까지 대물림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장과 전장』의 지영이나 『표류도』의 현희 역시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은 불가피하게 모계중심의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어머니의 역할 증대와 함께 여성의 활동 영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전후 극심한 궁핍함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은 강력한 모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해 그간 남성들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가 가부장제의 약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남성을 보조하면서 남성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아온 여성들은 남성 부재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실추된 가부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는 기형적인 형태의 가부장제 사회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당시는 부계 혈통을 이어갈 남성의 생존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여성들은 절대적 사명감을 갖고 남편과 아들을 감싸왔던 것으로 보인다. ‘씨’가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보전에 필수적이며 언젠가 집안을 크게 일으키더라도 남자가 없이는 그 영광이 공적 영역에서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여성들은 오히려 집안의 ‘남자’를 살려야 된다는 강박 관념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상징적 권위로서 가족 구성원의 머릿속에 항상 군림해 왔다. 실제로 남성의 권위는 아내와 어머니인 여성에 의하여 끊임없이 상기시켜졌다. 즉 남성 부재의 시기를 통해 남자는 더욱 존귀한 존재로 부상되었으며, 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우월감이 확보되는 부계 혈통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는 전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이런 이유로 당시의 어머니들은 실추된 남성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가부장적 의식을 주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는 『시장과 전장』의 지영이나 『표류도』의 현희에게서 나타나듯 여성의 삶을 억압함과 동시에 모녀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남성이 부재해도 남성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게 존속된다는 사실은 자칫 남성의 위상을 공허한 개념으로 전락시킬 우려를 낳았다. 남성의 실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부권 강화는 사회나 가정 안에서 남성의 위치를 매우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존과 달리 남성이 없는 가정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와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남성들의 위기의식은 가정 안에 남아 있는 남성성의 약화와 위축<sup>52)</sup>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불안과 공포를 수반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sup>53)</sup> 따라서 박경리 소설에서 갈등과 고뇌 속에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남

51) 조혜정, 앞의 책, 92쪽.

52) 1945년 해방과 대규모의 인구이동, 좌우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환대가 불가능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체현한다. 특히 징병이나 부역행위자 적발, 자본가 색출 등을 피해 숨어 있는 남성에게 이웃은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였다. 이웃은 언제나 나를 죽이거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적인 불안은 외부로 확산되면서 유동적인 주체를 형성하고, ‘건국’을 거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귀환과 전쟁 과정에서 남성주체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거나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 무기력해진다.(허윤,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Undoing」, 『여성문학연구』 제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64쪽.)

53) 1950년대는 남성들의 사망과 실종으로 인한 극심한 ‘여초 현상’이 빚어지고, 장기적인 인플레로 인해 가장 권이 약화되면서 남성성이 위축된 시기였다. 무엇보다 1950년대 남성들은 전쟁터의 공포와 죄의식을 씻어 내지 못한 채 현대적 적응을 요구받았다. 그들은 거세위험에 시달리는 식민지의 가부장들이었다.(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갈’ (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246쪽.)

성들의 등장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립과 소외 속에 갈등하다 사변적인 성격을 갖게 된 박경리 소설의 남성들은 『김약국의 딸들』의 김성수, 『노을 진 들녘』의 영재, 『파시』의 응주 등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성녀와 마녀』의 수영도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자기분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강력한 남성성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약한 면모를 드러낸다. 이들의 모습은 혼돈과 상실의 시대를 맞아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아픔, 좌절과 절망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약국의 딸들』의 김성수는 평생 현실적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로지 내면세계에 침잠하는 모습을 보인 대표적 인물이다. 김성수는 돌도 채 되기 전에 부모를 잃고 백부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정절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어머니와 행방불명된 아버지는 성수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거기에 백모의 구박과 학대가 더해져 그는 소외와 고립 속에 자신을 윤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훼손되어 가는 자존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김성수는,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혹한 시련 앞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소외의 길을 선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그는 집안의 가업인 약국을 물려받게 되어 김약국이 된다. 그런 성수가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은 사촌 누이 연순이었다.

“성수야.”

성수는 어금니를 지그시 깨문다. 불이 실룩거렸다.

“여기 뭐 하러 오지?”

“비상 묵고 죽은 사람을 한번 만나볼라고요.” (……)

“아부지도 누부처럼 머리칼이 노리다면? 아부지 머리칼도 명주실 같았을까?” (……)

“누부는 왜 시집을 가아?”

“시집 안 가고 죽으면 처니구신이 돼서 집안을 망친단다.”

“가지 마라!”(『김약국의 딸들』, 39~41쪽)

위 인용문은 아버지가 살던 옛집에서 성수와 연순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이미 금지구역으로 낙인 찍혀 출입이 통제된 곳이지만, 성수는 큰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결한 그 곳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이기에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은 한데 엉켜 성수의 삶을 지독한 고독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성수에게 연순은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다. 그러나 근친간의 혼인이 금기 규범인 만큼 성수의 사랑은 이를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간절한 열망이 되어 그를 억눌렀다.

아버지 봉룡을 닮았다는 가늘고 노란 연순의 머리카락은 성수에게 그리움의 실체로 다가오기에 충분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역으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그 그리움은 아버지의 노란 머리카락을 닮은 연순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 역시 성수에게는 연순에 대한 사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수였기에 연순의 따뜻한 마음은 모성으로 표상되어 성수의 결핍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성수에게 연순은 마음을 열고 소통한 유일한 존재임과 동시에 그리운 부모의 대변자로서 연인 이상의 감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수가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에 갇힌 채 단절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사랑했던 연순의 죽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순이 죽은 후 성수는 도깨비 집이라고 불리던 아버지 집을 중수해 들어간다. 살인과 자살이 연이어 발생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통념으로는 금기 사항이었다. 그러므로 성수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가 정한 금기를 깬 것으로 이는 기존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상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봉건적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집으로의 회귀인 만큼 가부장적 세계로의 복귀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수의 행동이 가부장제의 일탈과 복귀라는 이중적 측면을 지닌 것처럼 성수의 삶도 자신은 가부장제의 횡포에 의해 희생되었 으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다시 가부장제를 대행하는 인물로 구현되는 이중성을 보인다.

김성수는 부인인 한실택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일방적인 가부장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봉건적 가족관계를 강요하는 인물로 구현된다. 성수는 용빈을 제외하면 집안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딸들의 불행이나 집안

의 몰락에도 어떠한 책임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약국 일가의 여성들이 지독한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유도 유교적 신분 질서와 종속적 남녀관계를 신봉하는 김성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성수는 오직 자신의 내적 세계에 침잠할 뿐 약국을 접고 시작한 어장 관련 사업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모든 사업을 기두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관망만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집안일을 결정할 때는 물론이고 사업 진행과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자세를 취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성수의 죽음과 집안의 몰락은 유교적 질서와 봉건적 관습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약국 일가를 지배하던 가부장적 권위는 김약국인 성수의 죽음을 끝으로 종결되는데, 이는 『노을진 들녘』의 송노인의 죽음처럼 막강했던 가부장제의 와해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녀와 마녀』의 수영은 온존하는 봉건적 관습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반복하다 결국 좌절하고 마는 인물이다. 그는 기존 가치체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자기분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나약함을 보이는데, 그의 갈등은 자신의 사랑을 반대하는 아버지 안원석 박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안박사는 형숙의 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을 파멸시킨 지독한 탕녀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수영과 형숙의 교제를 반대한다. 때문에 수영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반발하고 저항한다. 그러나 수영은 끝내 아버지가 내린 금기를 깨지는 못한다.

아버지가 내린 금기를 깨는 것은 아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금기를 어기는 것은 사회화의 통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곧 남성성 상실에 대한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나 한편 탕녀로서의 형숙은 실상 자기 속의 또 다른 자기, 곧 아버지로 대표되는 사회를 거부하는 자기 그림자일 수도 있다. 형숙에 대한 수영의 이중감정 곧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공존은, ‘아프레 걸’의 규정과 경계, 계몽으로 일관된 구세대의 성담론에 대해 당시 신세대 남성이 가졌던 혼돈과 자기 분열적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54)</sup>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아내 하란에게 냉정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다. 형숙과의 재회는 수영을 더욱 병적이고 자학적인 모습으로 이끌고, 수영은 점차 광기어린 인물로 변해간다. 형숙을 사랑하나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격한 감정이 되어 수영을 괴롭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영이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봉건적 관습 때문에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다 좌절했던 당시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때, 그도 가부장제라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여 가없게 희생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노을 진 들녘』의 영재와 『파시』의 응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 중 『노을 진 들녘』의 영재는 넘쳐 오르는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사촌 여동생 주실을 겁탈하고 만다. 이후 근친상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는 그를 끝없는 죄의식과 방황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영재는 현실을 회피하기만 할 뿐 자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주실을 위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가 되어 영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재의 고뇌는 1960년대 혼란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영재는 불안한 자의식을 숨기려 술도 마셔보고 연애도 해보지만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피할 수는 없었다. 끝날 줄 모르는 성삼의 지독한 악행은 영재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결국 영재는 주실에 대한 책임감과 죄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성삼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한다. 영재와 성삼이 동시에 죽음으로써 비로소 주실은 모든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은 영재가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가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노을 진 들녘』은 전반적인 이야기가 영재의 행동과 심리에 의해 전개되는 만큼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고뇌가 작품 안에 잘 표현되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 상황을 각자의 개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영재의 친구 동섭과 상호의 모습을 통해 1960년대 젊은이들의 방황과 아픔을 표출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도 발견된다. 이들은 모두 암울한 시대 상황에 의해 위태로운 주체들로 구현된 남성들이었다.

54) 이상진,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전후의 성담론 수정 양상」,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391쪽.

당대 젊은이들의 방황과 아픔은 『과시』의 응주에게서도 발견된다. 『성녀와 마녀』의 수영처럼 응주도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부정당하는 수난을 겪는다. 광녀로 미쳐 죽은 명화 어머니의 일을 트집 삼아 응주의 아버지 박의사는 아들과 그의 연인 명화의 교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박의사가 응주와 명화의 결혼을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의사 자신도 명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작품 끝 부분에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응주의 정신적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사랑하는 명화와 결합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는 시대 상황도 응주의 방황과 고뇌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다.

박 의사는 담배를 눌러 끄고 강한 투로 잘라 말한다.

“죽회하고 결혼하는 거다!”

이내 말이 쫓아왔다.

“그건 아버지 자신을 위한 해결책이겠죠.”

“그렇다면 너는 명화하고 기어이 결혼하겠다 그 말이냐?”

얼굴에 절박한 것이 지나간다.

“그것이 어디 전뵈니까?”

박의사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진다.

“물론이다. 전부가 아니구말구, 네 생애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 죽회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거라. 넓고 풍부한 그곳 무대에 가서 마음껏 네 야망을 펴보고 생애를 걸어보란 말이다. 죽회는 둘도 없는 좋은 내조자가 될 것이다.”

“군대에 나가는 건 어떡하구요?” (……)

“뭇난 소리 그만해. 어리석은 짓이지. 모두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만 전장에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나?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가는 줄 아나?” (……)

“병신! 바보 같으니까, 다 살살 빠지는, 그래 군예를 나가겠다 그말이야?”(『과시』, 310~311쪽)

인용문에서 보듯 응주는 군 입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는 나라가 전시 상황이었으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투입되고 있었고, 응주는 자신도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군 입대의 불안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회와 결혼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응주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군 입대를 피하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응주에게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군 입대를 지원할 용기도 그에게는 없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의 결혼을 중용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풍전등화와도 같은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야 한다는 죄책감 등이 모든 상황은 응주를 지독한 혼란과 방황 속으로 내몰았다. 그 중 아버지와의 갈등은 응주를 점점 더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인물로 이끄는 매개체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뇌는 응주라는 작중 인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작가의 의도가 탐색된다. 당시 수많은 남성들이 이성적 결단 혹은 양심의 가책, 그것도 아니면 생활의 궁핍함 등 다양한 이유로 전장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인용문에서 보듯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유층 자제들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젊은 남성들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응주의 갈등은 당대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박경리 소설에서는 부재하거나 나약한 존재로 형상화된 남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남성들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혼란과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협요소로 작용하거나, 혹은 남성들을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어 불안한 존재로 이끌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 결국 남성성의 약화와 위축을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다름’을 열등한 것 혹은 틀린 것으로 보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세계의 폭력성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의 남성들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남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갈등하고 방황하는 주체로 구현된 것도 이러한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대응 전략

박경리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궤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인물들에게 당대 지배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에는 불가항력적이라 간주되던 가부장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구사된다. 이는 봉건적 관습에의 일탈을 시도하는 여성과 남성들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뛰어넘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모습은 오랜 기간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던 타자성을 극복하는 단초가 된다.

#### 1. 전통적 여성상의 거부와 저항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은 남성에 의해 신비화된 여성 이미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시도한 여성이다. 그녀는 남성들이 ‘여성의 신비화’라는 환상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동성, 양육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상을 받아들이도록 조장해 왔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여성상은 남성 지배를 당연시 하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소산<sup>55)</sup>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

여성적 자아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 개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자기희생과 선을 도덕적으로 여기게 했다.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 자기희생을 여성의 선행으로 간주하여 왔다. 여성, 특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갖는 주체로서 자각하기보다는 언제나 가족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상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 일하는 여성상이 부각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

55) 이희경, 「페미니즘 문학론 개관」, 최동현, 임명진 엮음,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1998, 8쪽.

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게 된다.<sup>56)</sup> 박경리의 작품에도 이러한 여성상이 제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박경리에 의해 창조된 여성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 첫 번째 유형은 가부장제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전통적 여성상을 고수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성녀와 마녀』의 문하란, 『김약국의 딸들』의 한실댁과 용옥, 『파시』의 선애, 그리고 『표류도』와 『시장과 전장』에 등장하는 현희 어머니와 지영 어머니로 대표된다. 이 여성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된 인물들로 현모양처에 입각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남존여비의 수직적 사회체계 안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비참하게 죽는 비극적 인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처럼 전통적 여성상을 추구하는 여성 인물들의 연이은 불행은 독자들에게 저항적 독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가부장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두 번째 인물 유형은 가부장제의 일탈을 통해 자신의 주체적 삶을 모색하려는 여성들이다. 『표류도』의 현희, 『성녀와 마녀』의 형숙, 『김약국의 딸들』의 용숙과 용빈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봉건 질서의 테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향한다.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성중심 사회는 이들의 여성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만, 박경리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봉건적 관습에의 이탈을 통해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다음 인용문은 『표류도』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전쟁 미망인 현희가 가부장적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가) 나는 내 용모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위한 생각인 것이다. 노동을 팔았지 얼굴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자존심 말이다.(『표류도』, 8쪽)

(나) “다방의 마담이 천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만 산다는 것은 꽤 귀중한 일이에요.”

56) 이해숙, 「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102~103쪽.

“천하기보다는 성격상 맞지 않을 거요. 학벌이 좋으니까 다른 적당한 직장이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직업보다 매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적어도 독립이니까…….”

말만은 그렇게 했다.

“사실은 선생님이 적당하다는 직장에서 여러 번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요? 왜?”

“질서라든가 명령에 견디 배길 수가 있어야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양말장수 비누장수 막 닥치는 대로 해먹던 장돌뱅이 버릇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

“그렇지만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예요.”

서슴없이 주워섬긴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요?”

“그럼요. 전 사생아를 낳았거든요.”(『표류도』, 32~33쪽)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현희는 다방을 운영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노동을 팔았지 얼굴은 팔지 않는다”는 자존감을 고수하며 비천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대응한다. 그러한 현희의 모습은 (나)에서 더욱 심화된다. (나)는 현희가 사랑하는 남성인 상현에게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 질서나 명령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였다는 점, 게다가 사생아를 낳은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말한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여성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사회에서 현희의 이런 발언은 매우 파행적으로 보인다. 현희는 자신을 불공평하게 억압하는 사회를 향해 직접적인 분노나 저항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에서의 이탈함을 수치스러워 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식할 뿐이다. 이러한 현희의 행동은 봉건적 윤리관에 대한 거부 또는 도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타자화시키지 않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찬수와 동거 생활에 들어간 점, 사생아를 낳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 게다가 ‘마돈나’라는 다방을 운영하

고 있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점은 여성의 삶을 규제하는 전통 사회에 대한 거부 및 저항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성녀와 마녀』의 형숙도 가부장제 사회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여성이다. 형숙은 소프라노 가수로서 독립적이고 당당한 성격의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공적 영역에 진출해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남성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우선시 하는 모습 때문에 사회로부터 ‘탕녀’ 혹은 ‘마녀’로 낙인찍힌다. 여기에서 형숙이 마녀로 불리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숙이 사회에서 경계와 단죄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의 권력과 위계질서에 도전했다는 사실 때문이다.<sup>57)</sup>

형숙의 행동은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남성의 보조자라는 여성의 역할을 망각한 결과, 결국 그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타락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당대 남성들의 시각을 생각한다면 형숙의 죽음과 수영의 가정 복귀는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죽은 형숙의 영상을 평생 간직해야 하는 수영의 모습과 수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공허한 집착임을 알게 된 하란의 모습을 통해 더 이상 가부장적 가정의 존속이 별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돌아왔다 허울만이 돌아왔다.’

허황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하란은 느낀다. (……)

저녁식사 때 가족은 실로 오래간만에 식당에 모였다. 수영은 형숙의 영상을 안고 하란은 허세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이 상반된 인간과 인간이 모인 가정이란 질서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대면하는 것이었다.(『성녀와 마녀』, 275쪽)

형숙이 죽은 후 오랜 방황을 하던 수영은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것이 가부장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영은 형숙을 잃은 후 삶의 의미

57) 남자는 공적 영역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꿈꾸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으며, 이를 스스로 주체로서 확인한다. 그러나 여자는 닫힌 사적 영역 속에서 어떤 가능성도 꿈꿀 수 없고, 닫힌 공간 속에서 오로지 생존을 위한 노동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이성환, 「무엇이 여자를 타자로 만드는가?-여성의 주체성의 기원」,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82쪽.)

저 잃어버리고, 하란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사랑해준 허세준과의 추억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녀의 죽음과 파멸이라는 결말 뒤에 남은 것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치장된 허상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자들이 이 작품에서 보수적인 가부장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경리는 『김약국의 딸들』에서도 유교 사회의 전통적 여성상에서 이탈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폭력적인 세계에 대응한다. 대표적인 여성으로 김약국의 첫째 딸 용숙과 둘째 딸 용빈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세계를 폐쇄적 세계로 규정하고 나름의 방법을 통해 도덕이나 관습의 벽을 뛰어넘는 과감함을 보인다. 용숙은 재물을 향한 욕망을 통해, 용빈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을 극복해 나간다. 여성이 장사나 고리대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 등은 전통 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성은 김약국 일가에 드리운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면모를 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존재 의의를 구현하는 긍정적 인물로는 용빈을, 부정적 인물로는 용숙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차별화시킨다. 김약국의 첫째 딸 용숙은 갖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고야 마는 탐욕스러운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과부의 재가를 금기시하는 사회 통념에 반발하여 불륜이라는 비정상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영아 살해혐의로 경찰서에까지 다녀오지만 전혀 죄의식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을 비난하던 세상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분출한다.

김약국 맥의 살림은 기우는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통영 바닥이 뒤집어 지리만큼 소란스럽고 추잡한 화제를 던졌던 용숙은 번창의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

용숙은 지난날에 당한 가지가지 모멸에 대한 반발로, 혹은 보복심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더욱 화려하게 몸치장, 살림치장을 하고 내 보란 듯 활보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겐 부탁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면 필요 이상의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

로 나갔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존경만 하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쭙 없이 세심하게 머리를 써서 돈을 깔았다.

“뛰니 뛰니 해도 큰소리치는 것은 돈이더라.”

그 말은 용숙에게 절대적인 인생철학이었다.(『김약국의 딸들』, 246쪽)

용숙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오직 부를 축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뛰니 뛰니 해도 큰소리치는 것은 돈이더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용숙은 탁월한 경제관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재력의 힘을 빌려 세상의 편견과 맞서려는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용숙이 스스로 자존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재물 축적이다. 그녀는 김약국의 딸들 중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해가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용숙은 김성수가 가장 혐오하는 딸로서 자신의 친정이 몰락하고 동생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도 철저히 외면하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는 용숙을 간통과 탐욕의 키워드와 결부시키고 가족에게조차 비정하고 냉혹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노출한다. 이는 박경리가 돈만 좇는 여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며, 전후에 형성된 속물적이고 타락한 배금주의적 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용숙이 재력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세계에 저항했다면, 용빈은 교육의 힘을 근간으로 하는 합리적 지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로 인정받은 용빈은 김약국의 딸들 중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부한 후 교직에 재직 중인 지식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용숙과 마찬가지로 용빈도 희생과 순종이라는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용빈은 김약국에 의해 아들격으로 대우받는 딸로서 김약국이 신뢰하는 유일한 자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빈도 김약국의 다른 딸들처럼 위기를 겪게 된다. 용빈은 정국주의 아들 홍섭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홍섭의 배신으로 실연의 상처를 안게 된 것이다. 용빈의 다른 자매인 용숙, 용란, 용옥은 모두 불행한 결혼 생활이 원인이 되어 가혹한 운명을 맞이했다면, 용빈의 시련은 기울어져가는 가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섭은 다른 여성에게 잠시 끌린 탓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정국주와 그의 아들인 홍섭에게 김약국 일가의 몰락은 결혼을 망설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김약국은 예전부터 용빈의 결혼을 서둘렀으나 용빈이 결혼을 번번이 거절한 바 있다. 김약국은 용빈이 학업을 계속 하더라도 홍섭과 먼저 결혼하고 난 후 공부를 하는 편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부장적 의식을 소유한 김약국으로서는 당연히 학업보다는 딸의 결혼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용빈은 보수적인 김약국의 기대와는 달리 학업을 선택한다. 그녀는 공부를 먼저 마치고 난 후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를 당당하게 밝힌다.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용빈의 진취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용빈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소유한 여성으로도 구현된다. 그녀는 전통적 여성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는 역사의식을 지닌 여성으로 부각된다. 용빈은 광주학생운동으로 피검되기도 하고 남성들과의 지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의식을 키우기도 하는 등 자신의 삶을 점차 민족적 차원의 삶으로 확장해 나간다. 지식인 남성들이 그러하듯이 시대적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담함을 드러낸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기존의 여성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종속되는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도전을 암시하는 행동으로도 읽힌다. 이러한 점에서 용빈은 주체적 자각을 통해 정체성 형성에 성공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용빈은 김약국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를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 지성을 갖춘 딸로서 이 때문에 심적 갈등을 빚기도 한다. 용빈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한다. 그러나 용빈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에 직접적인 대결을 펼치지는 못한다. 그녀 역시 유교 질서와 봉건의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항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실덕과 용옥의 죽음, 용란

의 실성 등 김약국 일가의 여성들에게 닥친 연이은 불행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약국이 죽은 후 용빈은 가족의 비극을 수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킬 유일한 딸로 인식된다. 다음은 김약국 임종 후, 용빈이 용혜를 데리고 통영을 떠나는 장면이다.

용빈과 용혜는 손을 흔들었다.

배는 서서히 부두에서 밀려 나갔다. 배 허리에서 하얀 물이 쏟아졌다.

“부우웅.”

윤선은 출항을 고한다. 멀어져가는 얼굴들, 가스등, 고함소리.

통영 항구에 장막은 천천히 내려진다.

갑판 난간에 달맞이꽃처럼 하얀 용혜의 얼굴이 있고, 물기 찬 공기 속에 용빈의 소리 없는 통곡이 있었다.

봄은 멀지 않았는데, 바람은 살을 에일 듯 차다.(『김약국의 딸들』, 415쪽)

용빈은 실성한 용란을 잠시 용숙에게 맡기고, 자신은 막내 동생 용혜를 데리고 통영을 떠난다. 김약국이 죽은 후, 실질적인 가장이 된 용빈은 몰락한 가문을 수습한 뒤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용혜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이는 용빈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가문의 몰락과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 등 “소리 없는 통곡”으로 대변되는 용빈의 고뇌는 모든 아픔을 간직한 통영을 떠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숙정에게서 시작된 가문의 비극은 이제 용빈의 탈향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된다. 물론 “봄은 멀지 않았는데, 바람은 살을 에일 듯 차다”라는 문장을 통해 그 과정이 쉽지 않음도 짐작된다. 그러나 온갖 시련을 통해 의지의 주체로 성장한 용빈이기에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용빈의 탈향은 김약국으로 표상되는 봉건적 폐쇄 사회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유교 사회의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희망했던 박경리 소설 속 여성들의 삶의 양상들을 고찰해 보았다.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성중심 사회는 이들의 여성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만, 이들은 봉건적 관습에의 일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엄성을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불가항력적이라 간주되던 가부장적 세상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여성들을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박경리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여성들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개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 2. 여성의 가치회복과 생명의식의 발현

오랜 기간 제도상이나 통념상으로 고정화된 성범주(性範疇)의 경계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해야 했던 여성들은 이제 스스로를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지하게 되면서 여성의식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다. 여성들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궤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적 자아를 탐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간 남성에 의해 폄하되어 온 여성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요구하게 된다. 이는 봉건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이 여성에게 보수적 성역할을 강요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산물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때 강하게 대두된 것이 새로운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여성 정체성의 확립이다.

박경리 작품의 여성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절망 등 가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평가 절하되어 온 여성성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이때의 여성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던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성과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으로, 폭력적인 남성지배 사회가 야기한 문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여성성을 지칭한다.

특히 박경리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여성성 회복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각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타인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지한 결과이다. 따라서 박경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기를 주문한다.<sup>58)</sup> 생명에 대한 자각은 왜곡되고 굴절된 여성성을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는 여성 정체성의 확립으로까지 이어진다.

『시장과 전장』의 지영은 외부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표출한 인물이다. 전쟁 전 지영은 자신을 옹아매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숨 막히는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종이 인형처럼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는 현실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지영은 수동적이고 비관적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관념 속에서 배회하던 지영의 자아는 현실 세계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처럼 지영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었다. 전쟁은 내면세계로 침잠된 지영의 자의식을 외적 세계로 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지영의 삶을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기능한 것이다.

지영은 전쟁 중 남편과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고, 혼자서 두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 남편 기석이 공산당 입당 원서를 낸 것이 발단이 되어 국군에 붙잡혀 간 후, 어머니마저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자 지영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거대한 시련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남편 기석의 투옥과 어머니의 희생은 지영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지영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책임져야 할 자식들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폐허 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지영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지영은 비로소 그동안

58) 박경리는 생명은 아픔이요,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아픔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 그래서 그는 인간에 대하여 혐오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생명에는 동일한 것이 없으며, 다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기르는 것뿐이라는 견해를 밝히는데, 여기서 생명이란 단지 인간의 생명만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 통신』, 22쪽.)

망각하고 있었던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바람이 조금 분다. 지영은 얼굴을 감싼 채 우물가로 걸어간다. 우물 속을 들여다본다. 우물 속에 달은 없고 꾸부린 지영의 등에 달빛이 비친다. 유리같이 맑은 밤.

“밟혀도 밟혀도 뺏어가는 잡초, 난 잡초야!”

지영은 우물 속을 향해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소리가 울려서 우물 속에 퍼진다.

“끈질기고, 징그럽고, 지혜롭고, 민감하고 무서운 여자야!”

소리는 다시 울려 퍼진다.

“살고 싶다! 내 자식들, 내 어머니. 당신은 죽어도 난 죽지 못해요!”

소리는 크게 울려 퍼지면서 지영의 몸은 우물 속으로 자꾸 기울어진다.(『시장과 전장』, 447쪽)

전쟁의 광폭함과 잔인함을 겪는 동안 지영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삶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기존의 소극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지영의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소외되면서 인간 존엄을 유지하려 했던 ‘내면적 세계의 극복’으로 볼 수 있다.<sup>59)</sup> 전쟁은 삶에 대한 애착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지영의 내면을 생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기제가 된 것이다. 작가는 국군과 인민군이 번갈아 공격을 퍼붓는 위험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영의 모습에 주목한다. 지영은 먹을 것을 찾아 밀가루 포대를 굽기도 하고, 헌 옷을 팔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간다.<sup>60)</sup> 이러한 지영의 모습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남성의 몫이었지만, 가혹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던 당시 시대 상황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정에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

59)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서울출판사, 1996, 400쪽.

60)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전쟁미망인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모아두었던 재산(금은보석과 같은 귀금속 등)이나 살림살이, 옷가지 등 무엇이든 내다 팔아야 했다. 또한 약간이라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거나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방, 양품점, 화장품가게, 담배장사, 딸라장사, 행상, 음식점 등을 했다.(이임하, 앞의 책, 100쪽.)

핍과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서적 불안감은 극복하기 어려운 이중의 고통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정의 주체로서 삶의 의지를 다진다. 그동안 소외된 타자로 존재했던 지영은 이제 적극성을 띤 주체적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지영은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훼손된 자아를 극복하고,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 그동안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세상과 조우한다. 이러한 지영의 정체성은 모성이라는 여성성의 회복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시화된다. 지영은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성적 자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아무도 오지 말라! 이 땅에, 아무도 오지 말라! 이 땅에! 내 혼자 내 자식들 하고 얼음을 깨어 한강의 붕어나 잡아먹고 살란다. 북극의 백곰처럼 자식들 데리고 살란다! 아무도 오지 말라! 아무도! 영원히 영원히 이 밤이 가지 말구…….”(『시장과 전장』, 436~437쪽)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성으로의 회귀가 가부장제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들은 인습화되어 있는 모성을 여성의 당연한 본능으로 여기는 시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성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수정되어야 한다<sup>61)</sup>는 입장에서 비롯된 견해이다. 그러나 지영이 획득한 모성은 가부장제가 주입한 남성 중심적인 모성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남성에 의해 제창되는 모성은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입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희생과 노고를 당연한 일, 본능적인 일로 간주해 버린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 모성은 오직 여성의 의무만을 강조한다. 이는 모성에 기대어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을 고착시키려는 가부장제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거치는 동안 지영이 획득한 모성은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61) 김현숙, 『페미니즘이 한국 여성문학에 끼친 영향』, 5쪽.

선택한 모성이라는 데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봉건체제 확립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모성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획득한 것이다. 이때의 모성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서 의무보다는 권리가 강조된 개념이다. 따라서 지영에게서 부각된 모성은 새로운 자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영은 전쟁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 짓는 잔혹한 전쟁의 속성이 지영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영의 변화를 단순히 생과 사가 교차하는 전쟁의 폭력성에 대응한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쟁 전 지영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현실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sup>62)</sup> 물론 전쟁으로 인한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이 지영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외부의 폭력에 대응해 나간 점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점 등 지영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에 대한 열망을 넘어선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또 다른 속성이 대두된다. 그것은 전쟁이 모든 기존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와 관습을 무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속성에 의해 여성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해 왔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도 전쟁에 의해 붕괴 및 해체를 경험한다.<sup>63)</sup> 바로 이것이 지영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동안 지영을 억압했던 가부장적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전쟁이라는 더 큰 공포 앞에서 무력해지고 만다. 생과 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통이나 관습 따

62) 전쟁 발발 전 지영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들과 아주 헤어지기를 희망하거나 혹은 자신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박경리, 『시장과 전장』, 180쪽 참조.)

63) 한국전쟁은 삶의 터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전통적인 일체의 권위나 관습 등 정신적인 것들까지 부정하고 파괴했다. 특히 피난으로 인한 이동과 피난지에서의 생활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질서와 가부장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이임하, 앞의 책, 192쪽.)

위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봉건적 제도와 관습이 초래한 억압적 상황에 의해 타자로 소외되었던 지영은 가부장적 권위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타자와의 적극적 만남을 수용하는 여성으로 변모한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재단하고 억압하던 사회 제도와 관습이 모두 무너지자 지영은 비로소 자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영은 전쟁의 광폭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유를 발견한 것이다.

지영이 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자유는 작품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시장에서 느끼는 자유와 상통된다. 『시장과 전장』에서 시장은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데, 지영이 가는 길에는 항상 시장이 있다. 집으로 돌아갈 때나 일터로 향할 때, 심지어 동료들을 만날 때도 시장 이미지는 지영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시장은 축제같이 찬란한 빛이 출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기쁜 음악이 되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동화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페르시아의 시장- 그 곳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때, 시장이면 그런 음악은 다 있다. 그 즐거운 리듬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그곳에서는 모두 웃는다. 더러는 싸움이 벌어지지만 장을 거두어버리면 붉은 불빛이 내려앉은 목로점에서 화해술을 마시느라고 떠들썩, 술상을 두들기며 흥겨워하고. 대천지 원수가 되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오다가다 만난 정이 도리어 두터워지는 뜨내기 장사치들.

물감 장수 옆에 책을 펴놓고 창호지에 담배를 마는 사주쟁이 노인도 서편에 해가 남아 있는 동안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온갖 인생, 넘쳐흐르는, 변함없는 생활이 이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시장과 전장』, 129~130쪽)

지영에게 시장은 ‘화해’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억눌렸던 자신의 삶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 장소로 인식된다. 게다가 시장은 ‘낮선 도시’, ‘낮선 거리’, ‘낮선 사람들’ 등 익명성을 전제로 한 곳이기 때문에 지영 입장에서는 가부장적 요소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으로도 다가온다. 즉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온갖 사회체제들이 일탈된 곳으로, 낮선 곳 낮선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익명성으로 인해 지영은 시장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계속된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영을 통해 본 시장은 여전히 활기 넘치고 기쁨이 샘솟는 곳으로 묘사된다. 시장은 지영에게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일상을 치유하는 위안의 공간이자 삶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지영은 힘든 피란 생활 중에도 시장에만 가면 역동적인 생명을 확인하게 되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장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소거된 곳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곳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상징적인 공간인 것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훼손된 여성성을 회복하고 폄하된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들은 끊임없이 주제화되어 표출된다. 『성녀와 마녀』의 하란은 줄곧 전통적 봉건 세계에 편입된 인물이었다가, 작품 끝부분에 가서야 자신의 믿음이 가부장제의 허상이었음을 알고 괴로워하는 여성이다. 하란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성녀로 대변되는 인물로 남편 수영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에 의해 찬양받는 여성이다. 그녀는 전통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그대로 체득한 여성으로서 복종과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현모양처의 자질을 두루 갖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하란은 남편에게만 철저히 외면당하며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란은 자신만 바라보는 허세준의 사랑도 거부한 채 오직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희망한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하란에게 끝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

가부장제를 추종한 여성에게 가부장인 남편의 외면은 삶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하란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정이 결국 허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을 인지한 후에야 비로소 가부장제에 윤택되었던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노력의 결실로 하란은 그동안 결혼 생활 때문에 그만두었던 교사 자리를 다시 알아보고, 더 이상 수영의 행동 때문에 상처 받지 않는 등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또한 오랫동안 자신만을 바라본 허세준의 사랑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아주, 아주 가버렸다.’

두 손을 모아 쥐고 뒷머리를 싸며 하란은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쳤다. 어두운, 어두운 울음소리가 이 사이로 새어 나왔다. 영영 떠나버리고 만 허세준을 위하여 우

는 것일까? 불행하였던 그 사나이를 위하여 하란은 뼈에 사무치도록 우는 것일까? 아니었다. 하란은 자기 자신을 울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하란은 허세준을 사랑했는지 모른다. 외곶으로 쏟아져 나오던 허세준의 무서운 정열에 하란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는지도 모른다. 그 거칠고 우악스러웠던 사랑의 표현은, 수영에게만 흘러가던 하란의 물줄기를 결국 끊어놓고야 말았는지도 모른다.(『성녀와 마녀』, 259~260쪽)

하란은 세준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린다. 하란의 이러한 행동은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버린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낭만적 사랑에 기대어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64)</sup> 사실 낭만적 사랑은 박경리 문학 작품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이다. 『표류도』의 현희와 상현, 『성녀와 마녀』의 형숙과 수영, 『김약국의 딸들』의 용란과 한돌, 『시장과 전장』의 가화와 기훈 등 박경리는 작품 안에 낭만적 사랑의 양상을 배치함으로써 서사를 극적으로 진행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분명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의 전복을 차단하는 주요 장치로 작동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낭만적 사랑은 자신의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끊임없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해 성역할의 고착화를 불러왔으며, 결혼 후에는 여성을 다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머무르게 하는 역할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이 여성을 새로운 가부장적 지배체제에 안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박경리 문학에 형상화된 낭만적 사랑은 희생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아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도 않는다. 특히 낭만적 사랑의 결과가 이별이나 죽음 혹은 실성이라는 비극과 결부되는 것을 생각할 때, 박경리가 낭만적 사랑을 내세워 여성을 다시 가부장제의 틀 안으로 규정지으려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순수한 사

64) 박경리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낭만적 사랑과 성의 예찬은 여성을 남성적 권력의 문화적 도구를 담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성계급체계를 강화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조건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경리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소외의 한 극복 수단으로서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은 박경리의 세계관적 한계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이덕화, 앞의 논문, 215쪽.)

랑의 대명사인 낭만적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작가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낭만적 사랑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개념임은 분명하게 제시된다. 낭만적 사랑 뒤에 남은 것이 하나 같이 참혹한 결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류도』의 현희,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 『시장과 전장』의 지영 등을 통해 작가는 대부분의 여주인공들을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능동적 인물로 형상화한다. 특히 『표류도』의 현희는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이상현과 이별하고 현실적 사랑인 김 선생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처럼 박경리의 여주인공들은 낭만적 사랑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현실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녀와 마녀』의 하란 역시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허세준과의 결합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닫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는 데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봉건 사회의 그릇된 관습과 통념에 의해 성적 유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파시』의 수옥도 작품 끝부분에 가서는 점차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성장을 보여준다. 서울댁과 서영래의 추악한 거래에 의해 씨받이로 전락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옥은 다행히 학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상실했던 자신의 정체성 탐색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학수는 서영래로부터 수옥을 구해내고는 함께 개성이라는 외진 곳에서 살면서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을 구현해낸다. 이런 학수의 노력은 삶의 의미를 잃었던 수옥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여성의 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영래의 추격과 음모로 인해 학수가 군대에 징집 당하게 되면서 둘은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수옥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수옥은 학수의 어머니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학수의 징병이 죽음을 의미하는 절대적 위기 상황을 그려낸 것이라면 수옥의 임신은 생명의 단절을 해결할 대안으로 박경리가 설정한 장치로 보인다. 수옥이 새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작가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며 이야기를 종결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옥의 탈출이 성적 유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학수라는 남성의 힘을 빌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점과 임신을 빌미로 남녀의 결

함을 인정받는다. 설정은 여성의 삶을 다시 가부장적 세계로 한정짓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결말은 앞서 보았던 『시장과 전장』의 지영이나 『성녀와 마녀』의 하란과는 분명 대조되는 결말이다. 박경리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폭력적인 가부장제의 폐단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완전한 여성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은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삼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궤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적인 자아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동안 제도상이나 통념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의 범주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해야 했던 여성들은 전쟁, 불행한 결혼생활, 성적학대 등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치회복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여성성 획득은 복종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외부 세계의 폭력에 대항하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왜곡되고 굴절된 여성성에 수정을 가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결과로 보인다. 특히 『시장과 전장』의 지영에서 보듯 이들의 여성성 회복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생명을 향한 열망은 곧 삶에 대한 의지로 추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경리의 여성들이 점차 자신의 자아와 가치를 회복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시』의 수옥에서 드러나듯 아직 봉건적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음을 알 수 있다.

### 3. 양성평등과 공존의 모색

박경리는 여성 문제를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짓기를 거부한다. 때문에 그녀는 여성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와 유리되어 단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가부장제 사회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문제에서 남성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sup>65)</sup> 따라서 박경리 소설에는 남성지배 사회의 모

65) 송무 역시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성도 여성의 관념에 의해 상관적으로 규정

순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려고 하는 남녀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이는 작가가 남녀 관계를 상극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한 결과이다. 작가는 궁핍하고 소외된 전쟁미망인으로서 가부장제로 인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직접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sup>66)</sup> 그러나 박경리는 남녀 간을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가부장제 사회로 인한 여성의 차별과 억압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에 등장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점차 대립에서 상생으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박경리는 『표류도』의 현희와 김선생, 『노을 진 들녘』의 주실과 동섭,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과 강극, 그리고 『과시』의 수옥과 학수 등을 통해 양성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 상호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폐해에서 파생한 남녀 간의 대립 관계는 작가에 의해 공존을 위한 상생의 관계로 표출된다. 『표류도』의 현희는 유부남인 이상현을 사랑하지만 그와의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남자 김 선생(환규)을 선택한다. 현희가 김 선생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선생은 현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결혼 후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현희 씨가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또 내가 현희 씨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보다 마음이 맞다는 것, 생각이 같다는 것, 헤치고 나갈 세계가 같다는 것, 그런 점이 둘을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상현이는 감정의 대상이요, 찬수는 지성의 대상이요, 환규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는 마지막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세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되는 존재이고, 남성 역시 지배적 사유 구조의 억압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관관계가 현실 삶에 힘의 관계를 만들어내며, 그렇게 볼 때 페미니즘은 “인간(人間)” 곧,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성이고 사람의 삶을 모양 잡는 일에 관한 반성이라 말한다.(송무, 『페미니스트 인문학』,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12쪽.)

66) 박경리는 동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말한다. 그 중에서도 전쟁고아, 전쟁미망인들의 처지가 가장 참담하지 않았나 하는 말도 덧붙인다. 과부라든가, 미망인이라는 호칭에 업신여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역사적 통념이 가지지 않았던 땅, 남과 같은 품삯을 지불받고도 여자가 일을 부탁하면 일꾼들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풍토에서 어린 것과 노인을 두 팔에 끼안은 것 같은 심정만으로 가진 것 하나 없어 허허로운 별관에 서야 했던 젊은 날, 옷깃을 세워도 목덜미에 찬바람이 기어드는 것만 같았던 어두운 젊은 날, 여성운동으로 치닫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 어디 비단 자신 혼자뿐이었겠느냐는 술회를 한다.(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 통신』, 115쪽.)

것입니다. 애정이나 일이나 죽음까지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표류도』, 285~286 쪽)

김 선생은 딸을 잃고 괴로워하는 현희에게 의지로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한다. 현희가 사랑했던 유부남 상현은 감정의 대상이고 남편 찬수는 지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 고난에 취약함을 보였지만, 자신은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다. 감정과 지성은 현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길항해오던 과제였다. 결국 현희는 의지를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그 둘 사이의 대립에서 자유로워진다. 현희의 이런 결정을 놓고 논자에 따라서는 반페미니즘적인 선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김 선생에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여성을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결국 가부장적 세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현희의 이런 결심은 여성 문제의 본질을 축소 혹은 은폐하는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남성에게 의존해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현희가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면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희의 삶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까닭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현희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 김 선생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희는 찬수의 죽음, 살인에 따른 감옥살이, 갑작스런 딸아이의 죽음 등을 겪는 동안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질타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런 고통 속에서 현희는 세상과 맞서 당당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하고 현실에 적응해가며 생명을 지탱”(286쪽)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김 선생과의 결혼이다.

현희는 자신의 삶을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김 선생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따라서 현희의 결혼 결심은 여성의 무력함으로 인해 파생된 행동이 아니라 이상적 관념 속에 머물던 자신의 자아를 현실 세계로 복귀해 삶의 주체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현희의 결심은 여성 문제 해결을 향한 작가의 시각이 작품에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오

로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 즉 인간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성의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작가의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현회의 고통이 남성지배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남성과 유리되어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는 작가의 견해가 그대로 드러난 결말이라 생각된다.

여성과 남성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는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과 강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용빈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으로 박경리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낭만적 사랑을 추종하는 여성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인물이다. 용빈은 집안의 연이은 불행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힘과 지적으로 단련된 의지로 가족의 비극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때 삶의 조력자로 등장한 남성이 강극이다. 강극은 사촌인 태운의 중재로 만나게 된 사람으로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용빈에게 함께 중국으로 가서 혁명 운동에 동참하자고 권유한다. 또한 용빈이 불행한 가족사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신 역시 비극적 가족사를 가진 사람임을 밝히면서, 국권 상실의 시대에 수많은 우리 민족이 용빈과 같은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약국의 딸들』의 전체 이야기에서 다른 등장인물과 비교할 때 강극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강극이 용빈의 조력자로서 용빈의 미래를 암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로 파악된다. 작품의 결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강극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앞으로 용빈이 중국으로 가서 강극과 함께 국난 극복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결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와 민족의 아픔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도 역사의 주체임을 인지한 작가의 소신 있는 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말은 그동안 역사의 주변부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라는 데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작가는 강극을 『표류도』의 김 선생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 사고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인물로 그린다. 이는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서로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해 나갈 동지로 여기는 점에서 확인된다. 강극과 김 선생은 용빈과 현회에게 수동적이고 현신적인 여성상을 요구하지 않

는다. 오히려 강인한 삶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원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남성들로 분류된다.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봉건적 윤리의식을 강요하지 않는 남성들의 모습은 『노을 진 들녘』의 동섭이나 『과시』의 학수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성적 유린을 당해 정조를 상실한 여성인 주실과 수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로서는 성적으로 유린당한 경험을 가진 여성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의학도인 동섭의 경우는 남성지배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지식인 남성이다. 동섭과 학수의 도움은 주실과 수옥의 삶에 결정적인 전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의 자아는 회복된다. 그러나 주실과 수옥이 남성들의 도움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부분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한 여성이 가부장제를 주조한 남성에게 기대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정은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류도』의 현희나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 『시장과 전장』의 지영의 삶의 자세와는 분명 대비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교육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여성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작가의 관점은 포착된다. 현희와 지영 그리고 용빈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들로서 자신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록 김 선생이나 강극이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 선택은 여성들 자신의 몫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주실과 수옥의 경우는 다르다고 여긴 것이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의 주실과 여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남성에게 유린당한 수옥의 경우는 깨어 있는 남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박경리는 가부장제의 폐해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남녀 상호 간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교육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여성 문제의 해결 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

과 유리되어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작가가 가부장제로 인한 피해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인간 본연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여성 문제를 여성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양성의 조화를 통해 남녀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 대립적이고 이질적인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경리는 작품에 봉건의식에서 일탈된 여성과 남성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소통을 통해 가부장제의 극복 의지를 피력했던 것이다.

#### IV. 의의와 한계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4·19혁명 전후라는 각각 상이한 시대를 노정하지만, 모두 가부장적 사고와 봉건적 생활양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남성지배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자유의지마저 박탈당한 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며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 따라서 성 차별과 억압은 당시 여성들이 흔히 겪는 수난사로 작동했다. 여성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국한된 존재로서,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적 공간은 오직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남성부재가 많아진 시대 상황은 더 이상 여성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sup>67)</sup>들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가족을 잃고 혼자된 여성들의 생존 문제는 비윤리적인 남성들에 의해 성적 침탈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다. 때문에 이들은 봉건적 사회 규범 아래에서 홀로 험난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질곡의 삶을 경험해야 했다. 여성들의 주체적 삶을 용인하지 않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 두 공간에서 모두 소외되는 불우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삶을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당대 여성들의 비극적 삶이 함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작가는 궁핍하고 소외된 여성 가장으로서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체험은 그대로 작품 안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은 소외된 타자 즉 주변인에 불과했던 여성들을 서사의 중

67) 6.25 직후 한국사회는 파괴된 가족과 직면했고, 이를 여성이 봉합해야 했다. 여성이 가장이 되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50년대 후반에 발표된 많은 수의 소설이 여성 가장에 주목하였고,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서사를 재현하였다. 특히 박경리는 초기소설을 통해 여성중심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1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08쪽.)

심부로 이동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가는 가부장적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의 비판적 재현을 통해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작가의 시각이 포착되는 것이다.

『표류도』의 현희는 사생아를 낳은 미망인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시달리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 세계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과 전장』의 지영은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남편과 어머니에 의해 종이 인형처럼 살다가 결국 가족에 대한 애착도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외지로 도피하는 선택을 한다. 또한 『성녀와 마녀』의 형숙과 하란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통제하던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는 시련을 겪게 되며, 『김약국의 딸들』의 숙정과 용옥은 정절 이데올로기라는 봉건의식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게다가 『노을 진 들녘』의 주실과 『파시』의 수옥은 성적 유린을 당하는 수모를 통해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상실한 타락 사회를 경험한다. 따라서 박경리는 이들의 재현을 통해 전후의 폭력적이고 속물화된 세계에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하는 저항적 독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박경리의 문학적 가치는 여성들이 겪은 피해 양상을 단순히 폭로하고 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작가가 가장 먼저 제시한 해결책은 왜곡되고 굴절된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가는 여성 인물들에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 획득을 요구한다. 봉건의식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여성상을 작품에 구현함으로써,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가부장제 사회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작품 결미에는 좌절과 방황을 거듭하던 여성 인물들이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는 『표류도』의 현희, 『시장과 전장』의 지영,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전후소설들이 여성의 빈곤이나 매춘, 성적 학대<sup>68)</sup> 등 단

68) 이국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며, 특히 여성의 성적 학대는 전쟁이란 특

순히 피해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문제를 고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경리는 가부장제라는 굴레 안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삶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가부장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남성들의 모습에도 천착한다. 때문에 박경리 소설의 남성들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강력한 남성성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성녀와 마녀』의 수영과 『과시』의 응주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아버지에게 의해 연인과의 사랑을 부정당하는 시련을 겪게 되며, 『김약국의 딸들』의 성수는 정절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어머니로 인해 평생 현실적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소외와 고립 속에 자신을 윤택시키는 외로운 존재가 된다. 이처럼 작가는 이들의 불행한 삶을 통해 남성들 역시 가부장제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남성지배 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작가는 남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공존을 가부장제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박경리 소설에서 재현된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중심 사회의 폐해를 고발함과 동시에 그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척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은 가치회복이나 정체성 확립과 같은 극히 개인적 차원의 성장에만 몰두할 뿐,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봉건의식 자체를 타파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완전한 삶의 주체로 구현되지 못하고 과도기적 단계에서 정체되는 여성들의 모습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성녀와 마녀』의 형숙은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하는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수영을 대신하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김약국의 딸들』의 용빈은 합리적 지성에 역사의식까지 두루 갖춘 지식인 여성이었으나

---

수한 상황 속에서 별다른 제재나 처벌, 혹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고 말한다. 특히 전후소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는 소설 속 인물들이 통제해야 할 주요 통제 대상이었음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는 강간이나 겁탈에 의한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양공주’와 같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까지도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빚어낸 성적 학대였다고 주장한다.(이국환, 「한국 전후소설의 인물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35~38쪽.)

가부장적 권위와 보수적 사회 통념에 직접적인 항거나 대결을 펼치지 못한 채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맞았다. 이들은 희생과 인내, 순종과 같은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자신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등 어느 정도 여성의식의 성장은 보여주었으나, 아직 세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주체로 구현되지 못하고 과도기적 존재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듯 『노을 진 들녘』의 주실과 『파시』의 수옥의 삶에서는 남성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새 인생을 찾는 수동적인 모습까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박경리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폐단과 그 해결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즉 남성중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에 따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 봉건의식 자체를 청산 혹은 타파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작가 역시 가부장적 사고가 팽배한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인 탓에 성장 과정에서 내면화된 봉건적 관습과 통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박경리는 여성해방에 입각한 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표방한 작가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이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과생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가 소설의 주된 모티프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작가의 시선을 포착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박경리 문학에서 표출되는 여성 억압의 실체와 가부장제의 모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성장해 가는 여성 주체들의 삶의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했다. 또한 봉건적 사회 구조의 폐쇄성은 여성은 물론 남성의 삶도 제약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가부장제 사회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문제가 양성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에 형상화된 여성들은 가부장적 위계 구조에 의해 심각한 정체성 훼손과 성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은 사회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남성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 통념과 규범들은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준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후 사회는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의 홀로서기를 부정함과 동시에 약자의 위치에 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키는 폭력적인 사회임이 확인되었다. 소설의 여성들은 주로 전쟁미망인이거나 전쟁으로 가족을 상실한 여성으로서, 전후의 속물화된 세계에서 이들의 몸은 비윤리적인 남성에게 의해 상품으로 취급되거나 도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의 비판적 재현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둘째, 박경리 소설의 남성들은 일제 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국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혼란과 상실의 시대를 맞아 부재하거나 나약한 존재로 형상화

되고 있었다.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당시의 암울한 상황은 남성성의 약화와 위축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불안과 공포를 수반하기 때문에 남성의 정체성 형성에도 악역향을 끼쳤다. 이는 ‘다름’을 열등한 것 혹은 틀린 것으로 보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세계의 폭력성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또한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봉건적 사고방식에 의해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다 좌절하는 남성들의 모습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모습에서 그들도 자율의지가 거세된 가부장제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소설의 여성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교 사회의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부조리한 사회로 인한 절망 등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자아와 가치를 회복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구현되고 있었다. 특히 봉건 사회 테두리에서의 일탈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변모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여성성 회복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각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향한 의지는 곧 삶에 대한 의지로 추동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넷째, 박경리는 남녀 관계를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한 결과 남성과 유리되어서는 여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문제 해결 및 양성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소통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려고 하는 남녀의 모습이 부각된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 안에 봉건의식에서 벗어난 여성과 남성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가부장제의 극복 의지를 피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한 이러한 결말은 가부장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온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남녀가 정신적 의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여 결합한다는 설정은 자칫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리는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작가로서 그 누구보다 여성의 자아 회복과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유교 질서와 봉건의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규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하려는 작가의

시선은 포착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성중심 이데올로기 자체를 타파 혹은 전복시키려는 적극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경리 소설이 남성지배에 따른 여성 억압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다는 점과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박경리 문학이 갖는 미학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 차별적 문화와 남성중심 사고방식이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여성 작가의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박경리 문학 작품 중 몇 편만을 선정하여 한정된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작가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박경리의 광범위한 작품들이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해본다.

##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 박경리, 『성녀와 마녀』, 인디북, 2003.  
\_\_\_\_\_,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노을 진 들녘』,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과시』,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표류도』, 마로니에북스, 2013.

### 2. 논문, 단행본, 평론

- 강국희, 「박경리 『토지』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기중, 「페미니즘 이론의 문학비평론적 적용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논문집』 제17집 3호, 순천향대학교, 1994.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김약국의 딸들』을 읽고』,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김선희, 「자아, 여성, 페미니즘」, 『한국여성철학』 제3집, 한국여성철학회, 2003.  
김수영,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김영민, 「박경리의 문학관 연구-고통과 창조, 그리고 생명의 글쓰기」,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 김은경,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 김치수,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김해옥, 「‘여성적 자존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1950년대 박경리 소설」,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 소설』, 박이정, 2005.
- 김현숙, 「박경리 문학의 생명사상」, 『한중인문학연구』 제24집, 한중인문과학연구회, 2008.
- \_\_\_\_\_, 「페미니즘이 한국 여성문학에 끼친 영향」, 『여성학논집』 제1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0.
- 김혜정,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연구-여주인공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11집, 개신어문학회, 1994.
- \_\_\_\_\_,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여성성」, 『개신어문연구』 제15집, 개신어문학회, 1998.
-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 통신』, 나남, 1994.
- \_\_\_\_\_, 『Q씨에게』, 솔출판사, 1993.
-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惡)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가족관계의 양상에 따른 여성인물의 정체성 탐색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 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9집, 국제한인문학회, 2012.
- 송 무, 「페미니스트 인문학」,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제22집, 세계사, 1994.
- 송희경,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자전적 요소의 수용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솔라미스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역, 풀빛, 1996.
-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사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 안남연, 「박경리, 그 비극의 미학」, 『여성문학연구』 제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 양문규, 「『토지』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서울출판사, 1996.
-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박경리의 소설」,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 윤남희, 「박경리 『토지』 연구-여성성 및 ‘일체’ 사상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국환, 「한국 전후소설의 인물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덕화, 「비극적 세계와 여성의 운명-『토지』 이전의 박경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8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 이미숙, 「박경리 소설의 변모 양상-1950년대,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상진,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전후의 성담론 수정 양상」,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 \_\_\_\_\_,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제3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이성환, 「무엇이 여자를 타자로 만드는가?-여성의 주체성의 기원」,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 이윤경, 「박경리, 박완서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혜숙, 「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한울, 2004.
- 이희경, 「페미니즘 문학론 개관」, 최동현, 임명진 엮음,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1998.
- 임은희, 「1950·60년대 간통의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임진영, 「『토지』의 삶과 역사의식」,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서울출판사, 1996.
- 조미희,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쥬디스 키건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9.
- 최 영, 「페미니스트 문학비평-그 이론화의 쟁점과 흐름」, 이명섭 외, 『현대 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 최재은, 「박경리의 『토지』연구-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허 윤,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Undoing」, 『여성문학연구』 제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_\_\_\_\_,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1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 ABSTRACT

### A Study on the early novels of Kyungri Park

Hyun Ae-soon

This dissertation studies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some of the early novels of Kyungri Park, one of the noted female writers in the country. She did not claim to advocate feminism based on women's liberation.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most of her works have the narrative involving female characters and the guiding motif is the discrimination and repression against women which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patriarchy, it is fairly apparent to notice the writer's point of view adhering to the critical stance against the male-dominated society

Therefore this thesis is aimed at exploring how the patriarchal ideology which oppresses and controls human beings is embodied in her literary works and what impact it has on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of women and men. The subjects of study include "*A Drifting island*(표류도)"(1959), "*Saint and Witch*(성녀와 마녀)"(1960-1961), "*The Field Glow with the Setting Sun*(노을진 들녘)"(1961-1962), "*Kim's Daughters*(김약국의 딸들)"(1962), "*Market and Theater of War*(시장과 전장)"(1964), and "*Seasonal Fish Market*(과시)"(1964-1965).

In the first in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identity of women had been damaged and how women's body had been repressed and had become the other in a society where patriarchal hierarchy was enforced. It is found that the postwar society was a violent one where women could only be regarded as significant beings in the relationships with men, and therefore seeking independence by self-supporting was denied to those unprotected by

men and women as the weak were even degenerated into sexual objects.

Park uses the strategy which paradoxically engraves the human dignity and the value of life by adopting death as a device to report the anti-lifeness of the male dominance system. In addition, as she live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her literary journey continued its path during the time of loss and turmoil where the existence itself as a national community was uncertain, which caused the masculinity to weaken and wither. As a result, male characters in her novels failed to take root in the realistic life and constantly agonized and debated, and eventually they showed a weak attitude to confine themselves in isolation and alienation.

The author requests her characters to stay out of the frame of the contemporary dominant discourse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trajectory of patriarchal ideology which suppresses the freedom of human beings. Thus she suggests her own solution to respond to the patriarchal society considered as unavoidable. In particular, the depiction of the women active in leaping over the social conventions and prejudices was the first step to overcome the internalized otherness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they were weathering the severe ordeals such as the anxiety about their own survival and the despair brought by irrational society, they were being portrayed as independent subjects recovering the damaged and disparaged self and value of women.

As Kyungri Park recognizes the men-women relationship not as incompatible but as complementary, she is in the position that if isolated from men, women's problems will not be solved. And she therefore emphasizes on the need for mutually beneficial rel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order to form desirable identity between men and women as well as to solve women's problems. Thus the patriarchal society described in Park's novels has secured a significant spot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at it provides a barometer to address women's problems by not only reporting the harmful effects of male-dominated society but also suggesting their solutions.